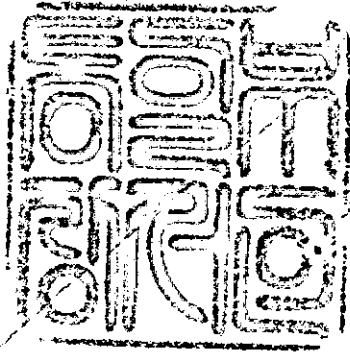


제9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은문집

반쪽이의 꿈

전산필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 되는 날...

차례

서울특별시.....9

우리를 하나라 불러다오 ● 유건환 / 11
 은하수 넘어 ● 박영숙 / 13
 강류 ● 조민국 / 15
 모든게 두개래요 ● 안나영 / 16
 어서와라, 통일아 ● 김재민 / 19
 까막까지의 비상 ● 강이숙 / 21
 할머니 ● 맹주혜 / 23
 기억의 사슬에 기대어 ● 이상화 / 25
 오두산에서 ● 이여름 / 28

부산광역시.....31

통일의 돌다리 ● 강지은 / 33
 통일이 유계가 있다면 ● 장은지 / 35
 통일이 온면 ● 이태미 / 38
 통일 전 산세들 ● 박다은 / 41
 통일의 38선 ● 김혜선 / 44
 통일의 리 ● 김호지 / 46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 강민정 / 47
 우리가 아래 함께라는
 힘으로 ● 문선영 / 50
 정 ● 이수현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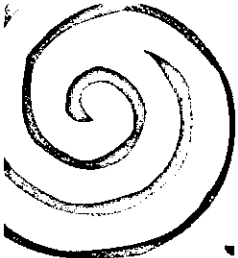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53

바늘과 실 ● 박유진 / 55
 담장을 넘어서 ● 김현아 / 57
 어린 적의 금강산 ● 조혜진 / 59
 통일 친구에게 ● 권하영 / 61
 슬픔이 다녀간 그곳 ● 한성중 / 64
 우리 모두 하나 되길 ● 채상희 / 66
 태극기는 ● 김소영 / 68
 언날리기 ● 김승수 / 70
 반쪽이 의 꿈 ● 전해선 / 72

인천광역시.....75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 한수정 / 77
 휴전선을 지워가며 ● 영하나 / 80
 북녘의 내 형제에게 ● 김희국 / 83
 금강산에서의 아침 ● 임예리나 / 85
 통일일을 부르는 노래 ● 소리 / 88
 북녘의 내 형제에게 ● 장승진 / 91
 통일일을 부르는 노래 ● 김주영 / 92
 이산가족의 소망 ● 류이란 / 96
 이산가족의 소망 ● 정주아 / 99





차례

광주광역시.....103

- 통일을 부르는 소리 ● 김영우 / 105
- 절사들 사이의 시간 ● 이영숙 / 107
- 간절한 나의 외침 ● 배송하 / 109
- 38선을 꿈으며... ● 전기강 / 112
- 바느질 ● 박소영 / 116
- 펄귀버리리 ● 박은혜 / 119
- 강산 ● 김대환 / 121
- 그림자만 자 한 민족아 ● 박장원 / 124
- 하나무므로 ● 김나래 / 126

울산광역시.....157

- 통일을 위한 길 ● 황세관 / 159
- 통일가 ● 김혜민 / 162
- 가지 꺾으리 ● 고영구 / 164
- 통일을 실은 배 ● 박호진 / 166
- 하나의 나라로 ● 박재우 / 168
- 그러나 경계선 그 위로는 하나 된
푸른 하늘이 있다 ● 이강영 / 169
- 우리 ● 서혜민 / 171
- 푸르른 6월에 ● 신화연 / 173
- 다짐 ● 김종욱 /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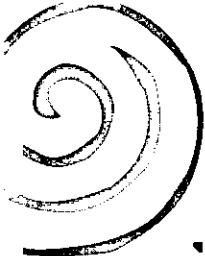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131

- 할아버지의 고향 ● 이병곤 / 133
- 수술 ● 정다이 / 136
- 고향 가는 길 ● 남궁민 / 138
- 통일이 되면
-다진 롬천 아이들을 보고 - ● 강미나 / 142
- 통일의 꽃 ● 이영석 / 144
- 6월의 모역 ● 윤현태 / 146
- 함께 가는 길 ● 이지훈 / 148
- 하나가 된 톱니바퀴 ● 박수진 / 150
- 그대에게 가는 길 ● 정주애 / 153

경기도.....177

- 늦게 잔羹 ● 심정태 / 179
- 함께 하는 남과 북 ● 정영재 / 181
- 내가 울겠다 ● 양혜민 / 183
- 지우개와 연필 ● 이경지 / 185
- 그 곳에 가고 싶다 ● 최선아 / 187
- 서로 손 잡게 하라 ● 이강민 / 189
- 빗방울에게 물어 본 스원 ● 박하늬 / 191
- 50년 ● 이미나 / 193
- 하늘엔 금이 없다 ● 김민지 / 195





차례

강원도.....199

우리 모두 정سه요 ●최서연 /201
 철책에 핀 들꽃을 보며 ●김지은 /203
 사부자리 ●김현아 /205
 한마을 이웃처럼 ●윤도영 /207
 꽃 ●민소영 /209
 할아버지의 날개 ●고가희 /211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둥그라미 ●정신애 / 214
 산마, 산마 ●이애지 /216
 무궁화 ●장일호 /219

충청남도.....245

통일의 빨간 저금통 ●최수경 /247
 갈 수 없는 그곳 ●김민정 /249
 그 날 ●이소영 /251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안민정 /255
 노인과의 안개 ●오혜민 /257
 울어라 심장아 ●이재훈 /259
 일년내내 ●오혜민 /261
 꽃보다 아름답게 ●전서희 /263
 그리운 내 사랑 ●서철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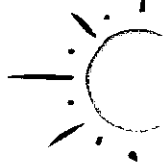
충청북도.....221

너와 내가 손잡고 ●유경은 /223
 6월이 오면 ●오민희 /225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날까지 ●김은애 /228
 작았던 날개가 ●노승기 /231
 너에게 ●이동현 /233
 지평선 너머... ●연혜민 /235
 오늘은 ●장성동 /237
 비방의 소리 멎던 날 ●이지현 /239
 피줄 ●반윤정 /241

전라북도.....269

휴전선의 봄 ●장예연 /271
 흔적(痕迹) ●김은경 /273
 할아버지의 인생마루에서 ●노희철 /276
 통일의 물꼬 ●김한비 /279
 파랑새 ●박하죽 /282
 북으로의 항해 ●한우리 /284
 나는 희망입니다 ●박희진 /286
 통일 ●김민지 /288
 종이 비행기 ●김희선 /290





차례

전라남도.....293

- 그 날이 오면 ● 박국빈 /295
- 통밀의 수평선 ● 신근지 /297
- 이름만 들어도 뼈가 시린 그대여
● 이나리 /299
-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 전대현 /302
- 다시 서는 6월! ● 장은혜 /304
- 소망 ● 배인혜 /306
- 룸전역의 이야기 ● 김용수 /309
- 통밀의 그 날 ● 박지현 /311
- 조여름의 깊은 밤 ● 조하나 /313

경상북도.....317

- 벽 ● 박지현 /319
- 금강산의 비원(悲願) ● 남이슬 /322
- 하나됨을 위하여 ● 정은진 /324
- 가 보지 못한 조록빛 땅 ● 천상화 /326
- 따뜻한 두 손 ● 황인영 /328
- 안개 ● 권수정 /330
- 통밀 한마당 ● 김도균 /332
- 아버지의 편지 ● 최유미 /334
- 한 걸음 ● 김새롬 /337

경상남도.....339

- 할아버지 무궁화 ● 고지현 /341
- 까치가 울면 ● 김영 /343
- 꿈 ● 김서연 /345
- 통밀의 꽃 무궁화 ● 오혜민 /347
- 까치야, 까치야 ● 정수린 /349
-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 이정훈 /352
- 무궁화 ● 이태환 /354
- 까치 ● 조영미 /357
- 꿈 ● 박소롱 /360

제주도.....363

- 활짝 웃는 한반도 ● 이연진 /365
- 별이 되고 싶으신 우리 할머니 ● 박지혜 /368
- 연(燕) ● 한아름 /371
- 종이처럼 ● 장민주 /374
- 꿈은 이루어진다던데 ● 양재민 /376
- 수평선 ● 김이양 /379
- 룸전 아이들 ● 허을 /382
- 복에서 온 특별한 선물 ● 오가민 /384
- 6월의 꽃 ● 김민지 /386



서울 특별시



• 우리를 하나라 불러다오.

• 은하수 넘어

• 강류

• 모든게 두꺼래요

• 어서 와라, 통일아

• 까막까치의 비상

• 할머니

• 기억의 사슬에 기대어

• 오 두산에서





우리 **를** 하나라 불러다오.

유 건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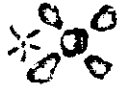
동요초 6학년

38선 줄넘기 놀이 그만하고,
우리 서로 손잡고
악수하세요.

우리 모두 안녕,
얼굴에 웃음 꽃이 활짝
우리는 한 민족이래네.

우리 **를** 하나라 불러다오.
우리 동무, 우리 민족,
우리는 한 가족.

문득, 떠오르는 동무
하늘에 얼굴을
떠올리네.



보고픈
동무 얼굴
마주대고 싶네.

어서 빨리 줄을 지우,
우리 서로
약수하세.

우리는 하나.
우리를 하나로
불러다오.

그리운 얼굴
그리운 동무



은하수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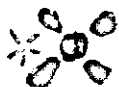
박 병 주

양동중 3학년

액이 끈 그믐에
직녀는 애끓는 눈물을 흘리니
야속한 옥황상제
이제 그는 무섭지 않다

반백년 헤어진 서러움에
내 사랑 잊을까
그동안 쌓아놓
애련이 더 반가워
견우야 직녀야
손 맞잡을 날 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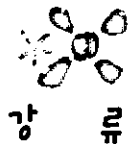
지금은 둘로 나뉜 하나
은하수 넘자
그네들이 살았던 옥토를 가른
은하수 넘자



이제고
옥호상상에 앞에서
다시금 초례를 치르고
맞설할지니...

넘실넘실 은하수에
난파된 칠 얼얼 띄워라
오작교 위에
풍악을 울려라
자늑자늑해 춤사위를 드높이자

아아 칠월칠석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여명이 꿈틀댄다.
그 날을 위해
베를 짜고 소를 치자



조민극

대일고 1학년

눈물과 같은 물안개 피우며
상처입은 땅을 가로지른다.

강바람에 공화된 반세기,
질게 토적한 송고한 울분을
흐느끼는 물살에 실어보내고

가라앉은 울음을 감추려
강물은 햇살을 받아 푸르려진다.

아름 다와 슬픈 대지 사이,
침묵으로 굶이치는 강류 한가운데에
작은 흰색 한 마리 왔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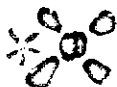
모든 게 두가래요

안나영
상속초 2학년

하얀 콧수머리 옆집 할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며 울고있어요.
이 하늘은 남한의 하늘이래요.

내 눈에는
하얀도화지 위에
하늘색물감 칠해놓듯 예쁜하늘인데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이 두가래요.

머리카락 한 올없는
대머리 어부할아버지가
바다를 쳐다보며 울고있어요.
이 바다는 남한의 바다래요.



내 눈에는
푸른빛 물결이 일렁이고
무지개빛 물고기들 헤엄치는
반짝이는 바다인데, 똑같은 바다인데
바다가 두개해요.

새침덩어리 우리언니가
TV를 쳐다보며 울고있어요
땅도 두개라서
저 다친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대요.

내 눈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기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무엇이든지 연결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도 두개해요.



하늘도, 바다도, 땅도
모두 두꺼라서
모두모두 슬프대요.

하늘도, 바다도, 땅도
그리고 우리민족도
모두 하나되었으면 좋겠대요.

언젠간 하나가 될거대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행복이란 이름으로.





어서와라, 통일아

김재민

신상중 2학년

얼씨구 좋다
통일의 바람
지화자 좋다
평화의 바람

싸움 그만 하세나
총칼 놓고 악수를
우리 편히 다니세
남북 같이 길내고
어서 와라, 통일아

북녘 가족 오게나
남의 식사 맛보게
남녘 가족 가세나
북의 강산 가보자
어서 와라, 통일아



영씨구 좋다
통일의 바람
지호자 좋다
평화의 바람





까막까치의 비상

정미숙

광양여고 2학년

이제는
날 때도 되었다

숨죽인 가슴
흙에다 털어버리고
바다가 다시 한번 용솟음치면

이제는
날 때도 되었다

남의 손에 이끌린
견우 직녀

염제의 맹렬한 시선에
피식 웃다가
반들어 총에 외면하는
현생은 연인이다



은하수 따위야 뭐가 대수랴
메우버리면 그만일 것을
길 잃은 까막가치야
회피의 이면일 뿐이다

따스 손 하나만 맞다면 그만일 것을
반들어 총에
고개돌릴 이유는 없다

오작교가 없다면
까막가치가 되어 날자
은하수로의 추락을 두려워 말고
까막가치가 되어
날아오르자

이제는
너른 포부 훌뿌리며
날 때도 도였다



맹 주 혜
아주초 6학년

오늘처럼 화창한 날이면,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는 할머니

행여나 비가 오면,
북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

어렸을 때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이상하게만 생각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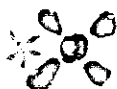
이제야 비문소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어마도 지금잠
할머니는
한 마리 새가 되어
북으로 훨훨 날고 계시겠지.

할머니는 지금잠
북에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지.

오늘도 난,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기억의 사슬에 기대어

이상미

명일중 3학년

아시요?

긴 울음의 세월에

사그라들던

우리의 사슬을

10년이면 변한다며 강산이 부르니

우리 님은, 내 고향은

편이나 다르시리요

알아보지 못하게

원하셨테니

만나도

날 모른다 하셨더라면

그때

기다리라 아니 했을테고

우지마라 눈물 닦지 않았으리요



하여

차가운 하늘 아래
허공에 맴도는 연결고리
찾아 헤매이던
슬픔의 손길

우리의 사슬이
바스라져
힘들다하여도
그네의 한쪽이 잘리면
창공을 가르던 날개는
상처입어 버릴 테니
부질없다한들
놓지 못하던
기억의 자락



남이여
내 기다림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 마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바라다하면
어이
함께하지 못하겠소

기다리리요
좀 더 올라가
달릴 날이 오면은
알 수 있으리니
그네는
결국엔
이어져 있지 않더이가



오 두산에서

이 여 미련
경복고 3학년

자유로 질주하는 차량 사이로
흰 개망초는
잘도 피었구나

철조망 너머 드넓은 합수머리
한강과 임진강
천리 물길 따라 열사안고 그리움을 섞는

인위가 오래 전 멈춘 곳,
경적 금지를 알리는 철새 도래지 팻말이
차라리 팽팽한 적막을 깨치는데

대안은 형제의 땅
사무친 마음으로 외쳐 불러보나
염원은 강 건너 민둥산에 부딪쳐
소리없는 메아리로 되돌아 오고



시간이 죽은듯이 멈춰버린
철조망 사이 태고의 평화는
오랜 상처를 가리기 위한 역설인가?

형제여

너무 오래 되었다
이제 둔탁한 병기를 치우고
녹슨 철조망을 거둬자

힘차게 물 위로 날아오른 물새가
느릿하게 수면 위에 내려앉은
저 단물나는 평화를 끌어안기 위해
서로의 가슴을 뜨겁게 열자

부산광역시



- 통일외 돌다리
-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 6월이 오면
 - 휴전선 산새들
 - 눈물의 38선
 - 우리
-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함께라는 힘으로
- 청





통일의 돌다리

강 지 은
영수초 5학년

남과 북의 사이
비어 있던 개울가의
돌다리 세 개

첫 번째 돌다리 걸으니
입에서 통일의 노래가
절로 나오고

두 번째 돌다리 걸으니
갑자기 가슴이 쿵닥쿵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 번째 돌다리
걸을 차례



세 번째 돌다리 걸으니
눈 앞에 펼쳐진 이 세상
너무 감동적이지

푸른 들판, 파란하늘 아래
북한 친구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또 빙글

그제야 그 돌다리가
뭔지 알겠어
바로 우리가 원하던
통일의 돌다리!

아, 행복하구나
통일의 돌다리야
고마워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장은 지
중앙여중 1학년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북녘땅 바라보는
철조망선
지도에 빨강게
그어진 3.8선줄
끊겨진 녹슨 철길
흔적없이 깨끗이
지을 수 있을텐데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54년 헤어진 이산가족
쓰리고 쓰러진
한 땅은 슬픈사연
흔적없이 깨끗이
지을 수 있을텐데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지금도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친구들 아픈 사연
마알가니 마알가니
지울 수 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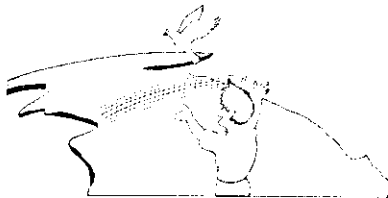
통일지우개가 있다면
남한, 북한이란 두 단어
아니 이 역사상에서
마알가니 마알가니
지울 수 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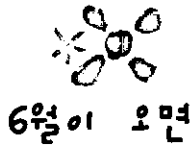
그래서 하얀 백지에
북한은 빨강,
남한은 파랑이닌
한글에서 백두까지
영원히 영원히



지우지 않아도 될
깨끗한 한반도 모습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두 민족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불리우고 싶다





이혜미
남성여고 2학년

녹음이 서럽게도 푸른
나뭇잎새 사이로
새하얀 햇살따라
고개를 틀어
나
어느 병사에게
이 푸른하늘 위에
이 붉은 장미로
편지를 씁니다

6월의 장미보다
더 붉은 그의 피와
6월의 햇살보다 더 뜨거웠던
그의 사랑
이 붉은 산하를 내달렸습니다.



아픔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었지만
그는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덮을 한줌 흙도
작은 관도 사양하겠노라며
내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가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무궁화를 피우는 것이 꿈이라며
나에게만 살짝 들려주셨습니다.

6월이 오면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며
속삭여 주시던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몽계구름처럼
피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당신이 원하시던
무궁화가 피었노라고





휴전선 산새들

박 다 온
청동초 6학년

휴전선 느티나무
가지에 북쪽 산새
남쪽 산새들이 모여
정답게 지냅니다.

통일 통일 노래만 부르다
이마에 지렁이 생기겠다

우리 이 작은
부리로 은하수라도
떼어 놓을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나란히 가지런히 놓아보자
무지개 다리
은하수 다리



은하수다리

쨌르르 라고 남에서 북으로

무지개 다리

쨌르르 라고 북에서 남으로

어제는

북쪽 산새들이

백두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남쪽 산새들이

한라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봄향기 같은

마음을 나누며

휴전선 느티나무 가지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산새들



정답게 인사 나누며
오손도손 얘기하는 산새들

통일 통일 말만하다
손주턱에 수염나겠다

서로 따뜻한
손에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눈물의 38선

김혜선
한바다중 2학년

남스럽고 북바라엔
소뿔이 하나

한강기의 풍포름
만들게 하고

남스럽고 북바라엔
소뿔이 하나

출렁이는 바다의
목걸이를 만든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한 민족을 갈라놓은
소뿔이 하나



순간순간 아픈 기억
지우개로 지우고

통일의 문 앞으로
한발한발 내딛어 보자

그 언젠가 잠긴 문
열 수 있을 때면

그 동안 참은 단물
그 때 흘러 보내자

놓을고 빛 바랜
소식이 하나

총력이는 바다의
목걸이를 만든다



김효지
중앙여고 1학년

나는 개만 밤 너를 만나는
반딧불이 되고
너는 맑은 하늘 나를 밝히는
무지개가 되자

나는 슬픈 마음 너를 달래는
피아노가 되고
너는 기쁜 마음 나를 즐기는
탐버린치 되자

나는 피아노치는 반딧불
너는 탐버린치는 무지개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어
우리가 되자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강원정

사동초 5학년

큰 폭발권 많은
피해를 입은 북한 어린이
깜짝 놀라 놀란 토끼 란으로
보았네

남은 옷을 입고
피투성이로 사는
북한 아이들

내가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굼맛인 과자를 먹을 때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북한 어린이가 생각이 난다

놀이동산에 놀러갈 때도
오빠와 롤러플레이드를 탈 때도
동생과 숨레잡기를 할 때도



북한 어린이들이 생각한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추억들이 가슴속에 남아
머릿속에 맴돈다

가족들끼리 헤어져
가슴속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북한 어린이들이
손에 손잡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보고 싶다 친구들아

내가 꼭 행복한 사람이 되어
지금 슬피 웃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
좋은 옷도 사주고
한번도 먹어 보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들도 사주어야지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상처 버리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면
다함께 오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라는 이름아래 함께라는 힘으로

윤 선 영
초등학교 3학년

바쁘게 뛰어가지 말자
숨 가쁘게 뛰다보면
어느 산가 지쳐버린 너와 내가
멈춰서고 말테니

우리의 마주한 눈빛만으로
나는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어써 맞추어 걷지 말자
너를 누르고 내가 되느니
나를 누르고 네가 되느니
우린 그냥 너와 나, 우리가 되자

너는 너인 채로, 나는 나인 채로
그렇게 우리가 되자



반 백년의 슬픈 세월과
반 백년의 아픈 눈물을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나란히해질 때,

'우리'였던 너와 내가
다시 우리라는 이름아래 함께라는 힘으로
하나될 때
그때 우리 두 손 꼭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청

이 수 현

부산정보관광고 2학년

시선이 미끄러진다
부끄러운 머리를 쳐박고
몸뚱아리가 고개 속이다

6월의 저녁에 풀꽃의 향기가 소슬소슬 흘러내릴 즈음
너는 거칠은 손, 탄약냄새를 안고
작은 발에 짝 움켜 쥐인 여름을 흐트러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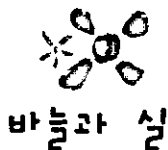
7.5kg의 총에 대한민국이 실렸던 때의
그 족쇄를 풀게 해야
내 심장에 등지를 들었던
새가 날아갈 수 있다

대구광역시



- 바늘과 실
- 담장을 넘어서
- 어린 적의 금강산
- 룡천 친구에게
- 슬픔이 다녀간 그 곳
- 우리 모두 하나 되길
- 태극기는.....
- 연날리기
- 반쪽이의 꿈





박 유 진
출판초 5학년

바늘아, 실아
내 찢어진 바지만
괘머지 말고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을
괘머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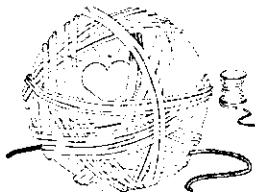
바늘아, 실아
떨어진 단추만
괘머지 말고,
헤어진 이산가족에
가슴 찢어진
우리 할머니 마음을
괘머지처럼

바늘아, 실아
여백 천만
만들지 말고



남북의 다른 전통을
하나로 합쳐
천처럼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해주렴

바늘아, 실아
너희들만
붙어다니지 말고
남북이 화해하고
가족처럼 지내도록
기도해주렴





담장을 넘어서

김 현 아

서부중 2학년

나팔꽃 덩굴이
담장을 넘는다

가느다란 팔을 뻗어
담장을 넘는다

이편과 저편을 가로막는
높기만 한 담장을

가느다란 초록 덩굴로
조금씩 넘는다

어느 새 가느다란 덩굴에
나팔꽃이 피어난다



부족한 힘일지도 모른다.
힘겨운 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넘을 수 있다

원래 하나였던 땅
담장이 가로막아도
덩굴은 넘을 수 있다
꽃은 피어날 수 있다

나팔꽃이
담장을 넘는다
우리가
담장을 넘는다



어린 적의 금강산

최혜진

경일여고 2학년

'금강산의 사계'

오백원 동전에 금강산 사진 몇 장 가치받을 하고
눈 틀어대고 있으면
고색창연한 사진들이 찰칵찰칵 스쳤다

눈 아리는 붉은 단풍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구룡포포
명경대의 옥빛 맑음마저도 초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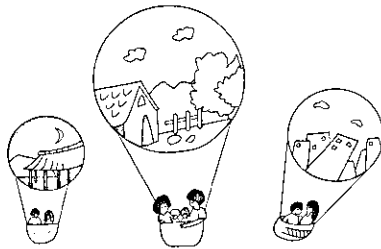
이게 어찌 절경일까
짙게 생각하고는
차라리 잊어버렸다
어차피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상하게 흔들리는 단풍에
경쾌하게 물보라 일으키는 구룡포포 아래에
내가 서 있다.



명강대의 옥빛 맑음에
얼굴 틀이대고 감탄하는
차마 맑아서 손 못 담그는
내가 이었다

오백원짜리 슬라이드기는
사라진지 오래
대신 거기엔 금강산 관광 육로 안내도가
아무리멀지도 않은 듯이 꽃혔다





룡천 친구에게

권하경

신애초 4학년

그 시끄러운
복길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둔탁한
벽돌더미에
얼마나 아팠는지?

금방이라도 뛰어가
너의 상처
어루만져주고 싶지만

금방이라도 뛰어가
물 한 모금이라도
적셔주고 싶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장막이
나를 붙잡고

시커먼 재가 되어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그 사이
우리들의 그리움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감춰 버리고

기도할거야
너에게
보숨 보숨
새 살들이 돋어나



건강해 지길

기도할거야

우리 같이 푸른 하늘 아래

손 맞잡고 노래하며

뛰어볼 날을 위해





슬픔이 다녀간 그 곳

천성준
수성중 3학년

세상 모든 슬픔이 다녀간 그 곳
 그 모든 슬픔과 함께 했던 그 곳
 나는 그 곳, 내 고향에 산다

그 곳에서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어
 철책 위로 단절된 서로의 마음 잇는
 새로운 희망이고 싶어라

그 곳에서 나는,
 커다란 산이 되어
 우리의 피맺힌 소리 드높히는
 커다란 메아리이고 싶어라

어찌 잊으리 그 때를
 슬픔으로 주름진 그 때를
 단물로 뒤덮인 그 때를
 이제는 다 잊고 하나이고만 싶어라



세상 모든 슬픔이 다녀간 그 곳
그 모든 슬픔과 함께 했던 그 곳
나는 그 곳, 내 고향에 산다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채상희

동문고 1학년

백두에서 방향을 틀어
 남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바람이여
 비바람 쳐도 끊어지지 않던
 이념의 질긴 끈을 세월에 녹여내니
 네 품속에 깃들일 곳 어디더냐
 녹슨 철조망 위로 애절함이 묻어날 때
 좁고 고독한 민족의 영혼은
 덕문을 향치며 가는 누군가를 본다

땅벌이 쏟아지는 태백의 준령에서
 힘겹고 고독한 민족의 혼이
 깨어져버린 분단의 겨울 속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 비추려 할 때
 우리의 간절함은 민족통일

네 꿈을 꾸고 가면
 흙벽 땀에 젖는다



석일 수 없는 이념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동질성을 위해
멀리서 일렁이는 몸짓을 보내고
먼 시간의 끝에서
통일의 강물은 한 없이 출렁인다





태극기론...

김 소 영

초등초 6학년

6.25 전쟁 때
참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조상님들
눈물과 피를 흘리며
싸웠는지

그래서

그래서

태극기론
조상님들의 마음을 담아
그리듯
생겼구나

태극기의 흰색은
조상님들이 아파하며
흘린 눈물

검은색은
나라를 걱정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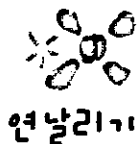


새까맣게 타 버린
조상님들의 손

파란색은
바다처럼 넓은
조상님들의 마음

빨간색은
총에 맞고
고통을 겪으며 흘렸던
조상님들의 피

그래서
그래서
태극기 는
조상님들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생겼구나



김 승 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 1학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북 땅을 향해서
연을 날리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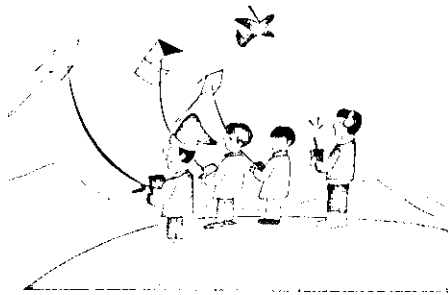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서
마음의 연을 날리신다

그 연은 만남의 연
연을 만들 때마다
주소와 이름을 쓰신다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새겨진다

그 연은 생명의 연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로
버터 오신 할아버지
대나무 살대께 소망이 맺힌다



비록 땅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떨어지지
않으셨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연에 실려 날아간다





반쪽이의 꿈

전혜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반달 모양 몸뚱이론
갈 수가 없어
오늘도
반달 한 쪽 찾고 싶어라

반달 모양 몸뚱이론
가고 싶어도
기떡기떡
시간 모양 제자리 걸음

또 하나의 반달 몸뚱이
만나는 날엔
딩글딩글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백두 너머 만주 별관
맘껏 띄우고



비단 길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지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 되는 날
데구르르
온 세상 갈 수 있겠지



인천광역시



•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 휴전선을 지우다가며
- 부녃의 내 형제에게
- 금강산에서 의 아침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부녃의 내 형제에게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이산가족의 소망
- 이산가족의 소망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한수정
인천부수초 6학년

북한의 친구야
난 너와 함께
놀고파
그림을 그리면서 말 이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 모든 곳 다니며,

작은 호관에
한라산에서 지저귀는
새 한쌍 그리고,

작은 호관에
부신항에서 팔딱이는
물고기 한쌍 그리고



작은 호관에,
수원 호성에서 지나나는
나무 한쌍 그리고,

작은 호관에
큰 도시 서울에서 솟아오른
빌딩 한쌍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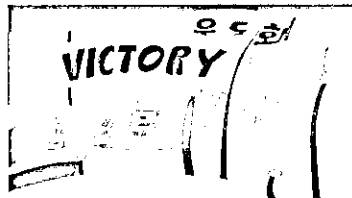
작은 호관에
개성에서 웃음짓는
부부 한쌍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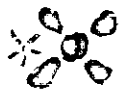
작은 호관에
먼 바다에서 잡혀오는
오징어 한쌍 그리고,



작은 호수안에
백두산에서 뛰어노는
산토끼 한쌍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 둘
그림 그릴때,
휴전선 철조망은
그리지 않는거야
그렇게, 그렇게
통일을 이루는 거야!





휴전선을 지워가며

염한나

상인천여중 3학년

휴전선 하나 두고
모두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을 깨고 나온
군인 발 아래,
노랗고 조그마한
민들레꽃 하나
자꾸만 보고있자니
민들레꽃 속에,
무언가가 보인다.

북쪽 하늘 바라보며
연신 눈물 흘리는 할머니도...

언젠가 만나게 될
북쪽 친구들에게 편지쓰는 아이도...



모두의 소망이
담겨있는
민들레꽃아

너의 씨들이
바람에 실려
휴전선 너머로 날아가,

또 다시
싹을 틔워 피어났을 때

어느 누군가가
민들레 꽃에 감추진
우리의 소망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민들레꽃아



너의 씨들이

여기저기

흙날려,

휴전선 주위 한 가득

피어나면

민들레꽃 속에

휴전선이 파문흔벼러려

지워졌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높다란 휴전선을

지웠으면 좋겠구나.



부녃의 내 형제에게

김희주

옥련여고 1학년

비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태풍을 끌어안은 비가 내리는구나

비구나
이 차가운 대지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구나

아우야
한 떨기 수줍은 민들레야
나의 예쁘디 예쁜 아우야

비가 내리느냐
너를 홀로 남기고 온
그 먼 부녃에도 비가 내리느냐



비가 내리느냐
눈꽃이 하늬거리던
우리 삼터에도 비가 내리느냐

아우야
흐릿한 나의 흑백사진아
나의 그림디 그리운 아우야

비가 내리느냐
우리 띄놀던 그 대지에
이 세차고도 세찬 비가 내리느냐

비가 내리느냐
네가 숨털되어 날아간 그 대지에
이 분하고도 분한 비가 내리느냐

비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눈물을 머금은 비가 내리는구나...



금강산에서의 아침

임여리나

경인교대부설초 6학년

꽃들이 한들거리고
맑은 기운 솟아나는 금강산
이제야 보는구나

흥겹게 부르던 노래
일만이천봉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구나

북쪽 땅 고운 흙
한옴큼 움켜쥐고
기쁨의 눈물 흘리는데
옛날 그 모습 아련히
기억나는구나

아아 50년 동안
쌓아온 설움
이제 다 툇해내는구나



가슴 가득 고여버린 슬픔
이제라도 그 한
풀어 보련다

그리운 옛 생각에
말 없이 흐느끼는데

반세기 전 하나였던
위풍당당 그 모습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침 해는 점점
밝아져
까만 어둠이 걷히고
투명한 아침이 내리는데



한반도 허리 짝짝
조이는 38선 허리띠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는구나





통일을 부르는 노래

소리

부평서여중 3학년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둘로 갈라져 더욱 강해진 한민족
하나돼 더욱 강해질 우리 민족

50여년의 시련은
최고로 오르기 위한
고통이었나 보다

소가 담금질을 통하여
강해지듯이
더 강해지기 위한
50여년의 시련이었나 보다

그리운 부모 형제
만나는 그날
부둥켜 안는 그날



통일 다리 건설하여
자유로이 만나는 그날

우리는 지금도 부른다
그날 위한 노래
우리는 아직도 지른다
그날 위한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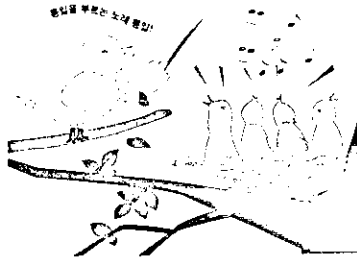
찢어진 철조망 사이로
자유로이 넘나드는 바람처럼
흐르는 물결 위로
헤엄치는 물결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칠천만 우리 민족
한 자리 모두 모여



한반도기 훈들
그날을 생각하며

우들도 부른다
통일의 노래를





북녘의 내 형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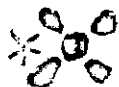
장 승 진

송도고 2학년

분주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고함소리는 사라져가고
총성과 싸이렌 소리만
남는다

같이 살지며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사라졌다

어둠은 사라졌는데
마음엔 그리움만 남는다
세월은 흘러
벌써 반세기...



통일을 부르는 노래

김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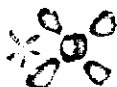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6학년

흘러간 강물처럼 못보는 줄
알았던 우리 북한동포여!

그러나 편지를 보내
받은 답장을 보듯이 만나 볼 수는 있네.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뚫릴 줄 모르고
답답하게 막힌 휴전선이
강산이 변화도록 동포들을 만나
지 굶하게 하네.

우리 모두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찢어져 있던 종이카 다시 붙듯이
이산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북녘땅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네.
또한 나라도 2배로 커져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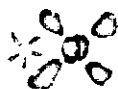


하지만 먹이를 잡으려는 사자처럼
노력해도 통일은 커녕
성벽같은 휴전선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네.

만리장성보다도 길게 느껴지고
히말라야 보다도 높게 느껴지는
휴전선

하지만,
남북간에 서로가 친구관계처럼
계속 신의를 다지고 우정을 쌓는다면

소원이자 꿈에서만 그리던 통일이
이루어 지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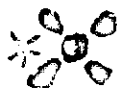
사과를 반으로 나누는 것 같이
분단된 남북이지만
서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것이 방향성도
통일은 되리라.

우리 한민족은 다시 하나가 될 민족인데
둘로 나누어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우리는 한줄기 한줄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만들며
통일을 향해 달려가네.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던
부낙당도



경제교류가 시작되고
금강산 관광도 하므로써
서서히 희망의 등불이 보이는구나.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고기처럼!
자유롭게翱翔하는 그날이 빨리와서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한민족이
되자꾸나!

동포여! 동포여!
위대한 한민족이여!



이산가족의 소망

류 아 란

계산여중 3학년

그리워
내가 찾아간
꿈에 그리던 곳

일만 이천
봉우리 사이
초록빛 바람
통일을 믿고

해금강,
출렁이는
금빛 물결은
희망을 부른다

삼천리
무궁화
하나하나 수놓아



북녘땅
내 형제
어루어 만져주리

바리참아
내 마음도
파란 하늘에 실어

저기서
달을 수 없는 저 곳에
내 여기 있다
메아리
전해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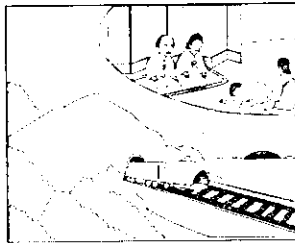
꿈 속에
고이 간직한
남은 사진 속



행복한 뿌리

그 모습에
마음 달라져

다가올
그날만을
기대한다 전해주소





이산가족의 소망

정 주 아

선화여자상업고 3학년

어둡고 습한 작은 이방 아래
냉기 도는 시체와 같이
병들어 가는 이 몸을 가지고도
나는 아직도 가슴 속에
한(恨)을 풀지 못하였다
그래도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젊어 살아서 헤어진
가족 한 번 보지 못했어도
나라 원망 한 번 하지 않았고
사내로 태어나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리크게 늙어서
결핍하면 눈물이 나고 원망하는
명만이 남았으니



이내 몸 죽어 어이 한(恨)을
풀고 가려나
누렇게 빛 바랜 어머니 사진
한 장 내 손안에
채 가져오지 못하고
전쟁이 터지고 피난길로 떠나면서
나는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렸다.
제 발로 걷고
생각할 줄도 알았었는데
왜 어머니를 끝까지 찾지 않았는가
왜 그때
어머니를 두고 남(南)으로 왔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생각하고 생각하여도
생각나지 않고 주름진
손마디 마디가 떨려온다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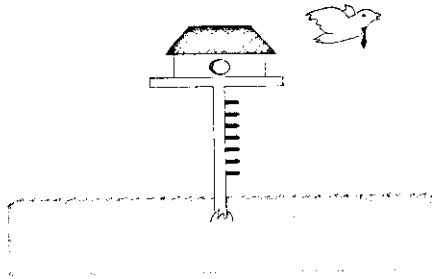


배 아파 낳아 길러 준
자식이 되어서 상(喪)치레는 커녕
언제 부모가 사거(死去)했는지도
모르는 이 불효자
아무리 후회를 한들
아무리 자책을 한들
죄스러운 이 마음
없어질 길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사죄하기로
방 한 북쪽으로
살아 생전에 해드렸어야 할
문안을 이제야 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숨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마음껏
볼 수 있으니
죽음으로 들어서는 이 길목은
명명 어머니와 나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통일이 되지 못하
면
볼 수 없었던 어머니!
이제 곧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 통일을 부르는 소리
- 철사들 사이의 시간
- 간절한 나의 외침
- 38선을 끊으며...
 - 바느질
 - 떨어버리리
 - 금강산
- 울지말자 한민족아
 - 하나이므로





통일을 부르는 소리

김 영 우

광주초등초 6학년

"똑 똑 똑"

무슨 소리일까요?

남북한이 하나 되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퐁 퐁 퐁"

무슨 소리일까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화해의 샘물이 솟는 소리입니다.

"똑똑똑"

무슨 소리일까요?

오십년 동안이나 부모형제를 갈라놓았던

휴전선의 철조망을 끊어내는 소리입니다.

"쌩쌩쌩"

무슨 소리일까요?



신의주까지 땃 돌린 철길따라
통일고속열차가 달리는 소리입니다.

"쭈 쭈 쭈"

무슨 소리일까요?

그토록 소원하던 통일이 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 흘리는 소리입니다.

"쑹 쑹 쑹"

무슨 소리일까요?

남북의 힘을 합친 통일조국이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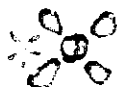
이 소리들을...

진짜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던 문방울들이 합쳐져 하나가 되듯

그렇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사들 사이의 시간

이성수

광주중 3학년

철책선 철사들
 사이사이로 흐르는 시간들
 서로 노려보는 시선들
 사이사이로 흐르는 시간들

철사들 사이로 만없이
 흘러버린 반백년의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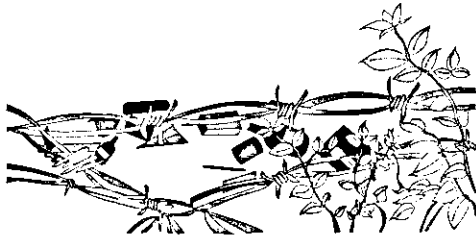
이 시간들 흐를 동안 우리는
 서로 힘들고 안락해왔던 우리는
 이제는 철책선 거둬 버릴 때
 이제는 닫힌 맘 열어야 할 때

거둔 철사 용광로 넣어
 녹여버리듯 우리 양금 녹여버리고
 그 용광로 속 뜨거운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원해야 할 때



흘러버린 반백년
이제는 우리 그 시간들 만큼
서로를 알아가야 할 때

우리나라 우리민족 문결이
하나로 이어짐을 시작해야 할 때





간절한 나의 외침

배 송 하

전남여자상업고 3학년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밝고 온 푸른 등 굴 굴마다
내 외침이 들릴려나
곧게 뻗은 내 손바닥엔
그리운 어머니의 향기가
잔잔히 맴돌고 서서다

플라스틱 딱딱한 작은 두 원
보이는 저곳 그 원안엔
단숨에 달려 안고픈
그리운 어머니 고향인데

그저 안라깝게
손마디 사이 보이는 풍경만
두 손에 꼬옥 쥐어본다



미운선, 슬픈 한반도
그 가슴에 돌리워진
차가운 철조망은
세월의 아픔을 꼭꼭

꿈속에서나마 어머니 품안에
두 손 꼭 맞잡고
소식을 전해 들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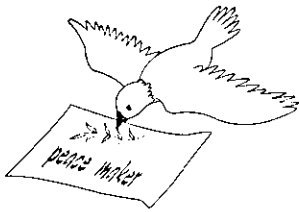
돌아서기 아쉬운 그날
통일전망대에서

김정호가 그린 한반도
하나의 꿈처럼
아시아 밝게 트일
푸른대지를 꿈꾸어 본다.



강하고 힘차게 뛰어오름
대한의 호랑이를
소망하며

모든이의 간절한
이 마음을 한데 모아
북쪽에 전해본다





38선을 꿈꾸며...

전 가 람

동림초 6학년

6.25라는
전쟁이 지나간 뒤
벌써 5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아직 우리는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만을
가슴에 담고 있다.

TV에 나오는
이산가족의 만남은
보는 사람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고
마음까지 아프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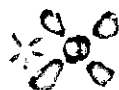


같은 땡땡어리 위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같은
조상들 아래 뿌리 내리고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 한 칸이 한 칸은
아련함으로 물이 들고...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잖
가슴속 맘은
통일의 꿈

이제는 더욱 더
가까워짐으로써



서로 돕고 살며
통일은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을 거라고...

서로의 소식조차도,
생사조차 모르며
살기를 몇십년째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넘쳤으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들도
차츰차츰 이해하게 가면서
거리를 좁힌다면



아마도 우리는
꼭 통일^의 꿈을
이룰 것이다.

38선을 끊으며...





박 소 영
경신중 3학년

전쟁의 시퍼런 가위날에
끊어진 한국의 땀줄을
한국의 그 멍든 마음을
바느질로 이룰 수 있다면
목청이 터지도록 이름 외치고
피눈물에 젖어서 후처대는
남과 북의 지친 몸을,
두동강 내버린 그 몸을
바느질로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면
평화라는 바늘과 사랑이라는 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몇날 몇일 몇년을 바느질 한 것

그 힘든 마음 다 잊고
기꺼이 뛰어나와 노래 부르리.



싸늘하게 식어버린 서로의 아픔을
손으로 쓸어주고
가슴으로 품어주고
상처 하나 남김없이 치유해 주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희망이 가능성이 되고
가능성이 열매 맺을
언젠가, 먼 훗날 언젠가를 위해
오늘도 서로의 상처를
바느질, 바느질, 바느질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마주보며 웃을 수 있게
우리라는 단어 아래에서
함께라는 조건 아래에서
서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지금까지 모든 말, 모든 행동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게
오늘도 바느질, 바느질, 바느질





떨구버리리

박은혜

송일고 2학년

한강물 마른들
내 눈물만큼은 마르지 아니하고

금강산 무너진들
내 마음 무너짐에 비할 바 있겠는가

한집살이하던 백구의 죽음에도
사흘 밤낮 애 끌여지는 듯 한데

한 밥상 둘러앉던 그대와의 생이별
형언할 길 있겠는가

칠천만 응어리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숨쉬니

겪어보지 아니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천 길 낭떠러지 너머
흐릿하져 버린 그대있으니

천 길 낭떠러지 높다한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억누르고 짓눌렸던 가슴 펴고
힘차게 뛰어 넘어보리

반 세기 흐름동안
같은 응어리 떨구어버리리



김 대 희
태봉초 5학년

금강산
꼭대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남북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이 있지요.

금강산을
쳐다보고
한걸음 한걸음
올라갈 때마다

금강산에
있는 소망은
더욱 커지고 있겠지요.



소망이
커질수록
통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을거야.

통일이 오면
다시
평화스런
나라가 되어
모두가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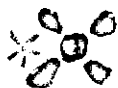
언제나
웃음 띠면 나라가
도이겠지요.

통일이! 통일이!
어서어서 와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여 주렴.





울지말자 한민족아

박 장 원

광주서광중 3학년

울지말자 한민족아
네 눈물은 이미 천지가 되고
내 눈물은 이미 백록담이 되어 맺혔니
울지말자

해는 저도 달과 별이 뜨고
비온 뒤엔 무지개가 뜨니
울지말자 한민족아

본래 하나였던 뭉클은
더욱 굳고 붉은 줄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줄테니
울지말자 한민족아

함께 히노애락하며 지낸
반만년을 생각하며
반세기간의 아픔을 잊어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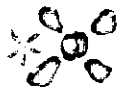


그 간의 상처 그 간의 아픔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눈물을 훔쳐주며
하나될 우리를 소망하면 이루어질테니

참고 기다리자
울지 말고 기다리자
씩씩하게 견뎌내자
울지 말고 견뎌내자

소중한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그 간의 눈물 눈물을 서로 훔쳐주자

그 날이 오기까지
울지말자 한민족아



하나이므로

김 나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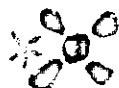
동아여고 2학년

50년 세월 내내 감추었던 눈물을
그는 눈물샘이 고장난 듯
썩썩대며 얼굴을 감싸주었다.

심장을 파내는 그리움의 손길은
뜨겁게 달군 차돌 위를 걸듯
그의 가슴팍을 할퀴어 낸다.

통일전망대의 난간을 붙잡고 섰다.
눈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세월의 장막에 가린 고향처럼

어깨를 스치고 가는 북녘 바람
부모형제의 다땀했던 웃음소리인가
지금 그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세월을 가로질러 소리쳐 보세
철조망 위를 타고 뚝박질 하세
어머니 여기 있소! 나, 여기 있소.

녹슬어버린 목청은 소리치지 못하고
늪어버린 두 다리는 달리지 못해도
마음만은 살아있소! 나, 여기 있소.

이제, 평화와 화합의 날개를 달고
편견과 오만의 갑옷을 벗고
나 희망의 처음을 알리러 날아가리.

백두와 태백, 한라를 돌아
칼얼음 날리는 바람을 딛고 일어나
나 그대들 마음 속 종을 울리리.



푸른 빛 점은 한반도의 마음을
붉은 빛 뜨거운 우리들 염원으로
이 땅위 모든이들 손을 울리리.

그래, 그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약속
그러니 아가야
너 지금 잡은 손을 놓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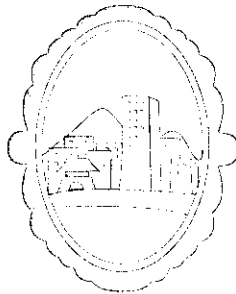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마음이어
더 크게 소리쳐 손에 손을 잡고
화합의 파도 타고 하늘을 날자.

기쁜 우리, 외로운 이들이여
만남의 눈물과 간절했던 소원들
함께 압록강 푸른 물에 목을 축여
우리의 새 날을 행진 하자.



더 이상, 말라 비틀어져버린 심장을
눈물로 적시는 비극은 없다.
우리는 하나이므로,

그래, 하나이므로



대전광역시



- 할아버지의 고향
 - 수술
 - 고향 가는 길
 - 통일이 되면
 - 다친 뽀빠이 아이들을 보고 -
 - 통일의 꽃
 - 6월의 묘역
 - 함께 가는 길
 - 하나가 된 톱니바퀴
 - 그대에게 가는 길





할아버지의 고향

이 병 곤

대전남선초 6학년

지도위의 대한민국은
참 작습니다.

그 가운데 38선은
더 작고, 더 작아...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속의
38선은
가슴에 눈물 맺힐 만큼
아픈 커다란 칼날 같습니다.

커다란 액자 속
백두산은
잡힐듯이
푸르고 너무 가까운데



할아버지 사진속에
백두산은
청진에 계신다는 큰할아버지 만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도위의
38선은
지우개로 지우면 그만인데

백두산 푸른물은
마음속에 가깝게 담아두면 그만인데

할아버님 가슴속의
고향은 어찌할건...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



꼭 가신다는
할아버지 고향은...
꼭 만나야만 한다는
큰할아버지는...

이제 곧 만나겠지요?
하나된 저 철로를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된 우리나라는
참 가까울 테니까요.

최우수



정 다 이
대전서중 1학년

수술 명
복합 수술

수술환자
남북한

담당의사
두 나라 국민

수술 부위
부위 38°
휴전선 부위

특이사항
1953년 응급조치로
휴전선



북한 룡천 부근에
남한 쪽
피부 이식 필요

수술 도구
관심, 이해,
그리고 사랑

성공 가능성
100%





고향 가는 길

남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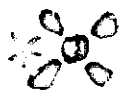
대전지족고 1학년

우리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고향을 물어보면
웃기만 하신다.

할아버지는 오름도
보고픈 어머니 등에 이고
굽은 허리로 사뻏히 걸어간다.

길도 보이지 않는 땅을
소맷자락에 눈시를 적시며
사뻏히 걸어간다.

모시한복, 꽃비녀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약과 가득히 이고
사뻏히 걸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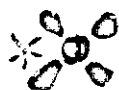


그곳으로 가는 길에
달구지 조그름 지나가고
조용한 교회당 지나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걷는다.

무거운 기색없이
어머니 등에 이고
달아버린 신에 날개 단 듯
사뻏히 걸어간다.

머릿속 자리 잡은
흔릿한 기억속의 그곳
사진속의 어머니는
손끝에 흐려진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 하고



철조망 지나 보이는
먼데 산을 바라본다.
할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는 것 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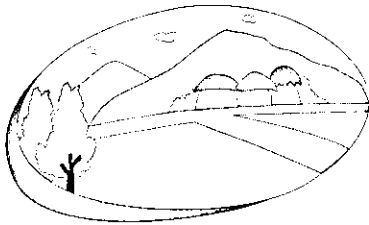
산 너머 들리는
구슬픈 매미의 노래소리에
할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있다.

구름 같은 그곳에
파도치는 조용함이 눈부신지
아득한 꿈길을 돌아
한없는 그리움만 지고온다

축쳐진 어깨로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손에는
오늘도 반쪽짜리 지도뿐이다.



우들도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고향을 물어보면
웃기만 하시겠지...





통일이 되면

-다친 공천 아이들을 보고-

강 미 나

대전보성초 6학년

우리는 얼굴에 흉터만 있어서도
성형 수술하는데
너희는 얼굴이 온통 화상인데도
약도 없이 붕대도 없이
그냥 서 있어서구나!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서 가는데
너희는 다리를 다쳤는데도
수술실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있어서구나!

우리는 아프면
어느 병원 갈까
고민하는데
너희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앓아 있어서구나!



통일이 되면
항해진 얼굴도
다친 다리도
아프면 언제라도
병원에 갈텐데...

오늘밤
공천 아이들과
예뻐 모습으로
백두산, 한라산으로
뛰놀고 싶다.



통일의 꽃

이정석

대전송촌중 1학년

거대한 호랑이
하리 아파
시름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북에 든 가족들 소식에
가슴이
시렸었다.

날마다 잊지 않고
아파한
휴전선 너머
그리운 가족들 소식에
애라던 마음

눈물되어
호수처럼, 강물처럼



흔러 흔러
어연 반세기

금강산
봉우리, 봉우리마다
우리의 발길이 이어지고
환하게 넘쳐나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룡천 길 위에 가득한
우리 온정의 물결로
사랑과 용기가 피어나고

아픈 가슴속에도
꽃은 피어나
통일의 꿈이 역문다.



6월의 묘역

유현태
유성고 2학년

6월의 현충일 묘역에 서면
나는 들을 수 있지.
영산홍꽃 피움으로 맺혔던 가지마다
짙은 초록빛으로 돌아오는 민족의 새벽 종소리를

누군가 놓고 간 시든 국화꽃과
한 잔의 술잔에 담긴 어머니의 기도가
눈부신 햇살에 묻어나는 오후의 한때

비석을 닦으면서
오십년 넘게 응어리져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당신들의 한을 싹다듬어 본다.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의 의미가
변증가고
진실은 뒤바뀌어
창끝에 세우지는 그대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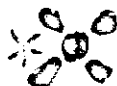
이름 모를 산자락에서 흥으로 스러지며
'아들딸아 너희를 위해 이 몸 먼저처럼 부서지더라도
자유의 깃발은 영원히 펼쳐이게 하리리'
그 외침 아직도 산하에 남아있는데

모두 잊어버렸다.

저기 저렇게 잔디 덮고 누워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
영산홍빛으로 짙붉게 피어나도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 없고

조금씩 붉게 물들여가는
남녘땅 바라보며
단물은 샘물 되어 솟아나는데

역사의 무상함이 햇살에 녹아나는
6월의 묘역에 서서
나는 어디로 갈까 서성이고 있었다.



함께 가는 길

이지훈

대전오류초 5학년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보자
한라산 뭉고인 백록담으로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보자
백두산 천지 울창한 숲으로

너와 나는 한민족
우리는 하나였대네

아리아리 아리랑
함께 부르며

덩실덩실 어깨동무
날리리야 날리리

송사리 미꾸라지
물장구치며

청보리 소몰이
먹 감는 냇물 속으로



정겨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초가집 마당으로

두런두런 이야기 꽃 나누며
함께 가 보자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 보자
우리 모두 손잡고 달음질 해 보자

해풍탄이 비껴가고
총부리가 거두지고

룡천역의 포박음도 잠재우는
통일 함성으로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보자
우리 모두 손잡고 뛰어가 보자



하나가 된 톱니바퀴

박수진

대전문지중 1학년

한 아름의 무궁화
한 다발의 진달래
우리 서로 가슴에 안겨주며
톱니에 맞물려서
통일 톱니바퀴를 굴리고 싶어라.

그대를 생각해보
남북 지도자가 만나던 날
전 세계가 숨죽이고 보니
어깨가 으쓱해지던 걸
포옹하던 장면에선
가슴마저 뭉클해지네

영특한 진돗개
용맹한 풍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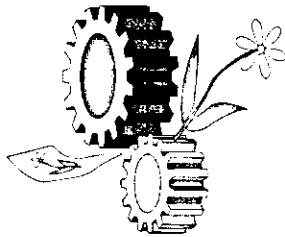
우리 손잡고 앞장 세워
톱니에 맞물려서
통일 톱니바퀴 굴리어 보자꾸나.

외 나라도 어려울 때
도와 준 적 있는데
우리 핏줄
공천 대 참사 고통 받을 때
도와 주고 도움 받으니
얼마나 좋아
나중에 우린
통일 톱니바퀴가 될거야

강물도 흘러 서로 만나듯
다른 말 다른 살림살이
좀 다르면 어때
톱니에 맞물려서
통일 톱니바퀴 만들고 싶어라.



천천히 서로가 마음을 열면서
한 톱니 한 톱니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오면
다시는 맞춘 톱니
어긋나지 않을거야.





그대에게 가는 길

정 주 애

신란진고 3학년

무명의 죽음 화석이 되고
 망각된 생명 비석이 된
 움켜쥔 반 백년 세월
 꿈조차 꿀 수 없던
 그대에게 가는 길

아물지 않은 상처
 잔혹하게 키우면서
 타이프로 외면했던
 나 지금
 그대에게 가는 길

온 들녘에 망초꽃 피어 있을
 6월 하늘 3·8선 너머
 어색한 몸짓, 엉거주춤 서 있을
 나 지금
 그대에게 가는 길



마주 달려와 얼굴 부비며
반겨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세차게 등 떠밀지 않는
나 지금
그대에게 가는 길

반만년 세월 한몸 되어
타인이 될 수 없는 필연
손 한번 잡고 보면 알 수 있으리
한번 안아보면 느낄 수 있으리
그대와 나 하나인 것을

먼길 돌아 돌아
다시 만날 청춘처럼
가슴엔 꽃이 피네
푸른 종소리 들려오네
그대에게 가는 길



그대가 하늘이면 땅이 되려네
그대가 꽃이라면 벌 나비 되려네
반만년 지나온 옛 세월처럼
아픔도 설움도 기쁨 마저도
그대와 하나되어 살 소망뿐이네

뱀장령 울어대는 초저녁
달맞이꽃이 피어 나려나
푸른 종소리 들리는 새벽속으로
임 마중 꽃이 피어나려나
그대에게 가는 길

울산광역시



- 통일을 위한 길
 - 통일가
 - 가지 꺾으리
 - 통일을 실은 배
 - 하나의 나라로
- 그러나 경계선 그 위로는
하나된 푸른 하늘이 있다
 - 우 리
 - 푸르른 6월에
 - 다 짐





통일을 위한 길

황 세 란
내향초 6학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기 쉬운 길은 없습니다.
힘난한 길을 지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 갔던 우리들
우리가 선택한 길은
더 힘난한 길이었습니다.

6·25 전쟁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들을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잃어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길을 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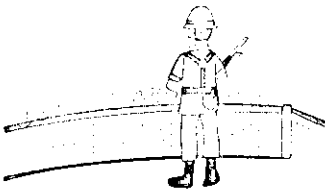
그 길을 가 본적이 없는 우리들은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에서 고통을 소모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와서 길을 되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고통들을
되돌리려고 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가

김혜인

울산서여중 3학년

작고 작은 들짐승도
 자기 형제 잃으면
 밤낮을 쉬지 않고 울어대고
 들에 피는 들꽃 한 송이도
 허리를 "뚝"하고 꺾어놓으면
 살지를 못하고 시들하게 되나니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내 형제를 앞에 두고 찾지를 못하니
 형님을 앞에 두고 아우님을 앞에 두고
 부르짖지 아니하니 차라리 내가
 저기 저 들짐승 되어 마음껏 울자.

50년 세월에 꺾어진 허리
 시들한 땅위에 서 있는 우리네.
 어서 다시 고쳐 놓을 생각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네.
아! 이러하니 산에 들에 소리쳐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구나!

세월의 상처가 깊어만 갈 때
38선 없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서
우리네 이제야 마음이 아파서
형님, 아우님 부르짖으니
희망의 울림이 퍼져나가네!

다시 세워진 나라 위에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이제는 슬픔도 눈물도 없을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세
아리랑 아리랑 우리의 노래를 부르세



가지 꺾으리

고영구

에니원고 1학년

산자락 꼬리에 어머니랑 손잡고
가지 꺾으러 간다 했었지.

어니는 바구니 머리에 지고
내야 바구니 등쪽에 지고

무심하고 도도한 쥐바라승꽃 보이거든
얼른 떠다 어머니께 달아드렸지.

땅거미 쉬 내리고 밤이 내려 앉거든
주워온 산딸기 어머니랑 나누먹고

그리운 그 모습이 철망 너머에
이제는 그 어머니가 매화향 너머에

가라면 한결음에 달음박질칠거라
보라면 두 눈에 깊게 새길거라

이상에 젖어 떠난 아버지는 제쳐두고
어머니랑 손잡고 산자락 갈 것이라.



통일을 실은 배

박효진

상진초 5학년

남과 북은
한 배에 타고 있어

서론가 이겨야 할
우리의 금수강산

우리 모두 다같이
살아가는
모두의 땅

우리의 진심은
하나지만
땅은 둘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다



통일의 기쁨으로
흘리던 눈물
몇 방울이면
우리의 아픔은
치유할 수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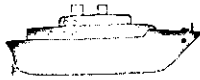
그 동안 아픔도
눈물도
만화할 수 있겠지

서로 한마음으로
넓은 바다를
항항해 보자

서로 한마음으로
거친 바다를
이겨내 보자.



북녘 땅에도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있다.





하나의 나라로

박 제 우

학생중 3학년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바람이
 압록강 험한 물줄기 따라 흐르고
 백두산 울려 메아리로 퍼질 때
 우리는 거룩한 통일을 꿈꾼다.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고 다가서며
 화목하고 정다운 평화의 속삭임 속에
 우리의 희망은 아름답게 피어올라
 한반도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진다.

서럽고 고달픈 역사의 한을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하나씩 지우기며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기쁨이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만든다.



그러나 경계선 그 위로는
하나 된 푸른 하늘이 있다

이 해 영
우신고 2학년

그 옛날
태극기 들고
만세 외치던 날
우리는 하나였다

세월이 흘러
총칼 들고
매섭게 싸우던 날
우리는 적이었다

이제는
경계의 눈빛들
소창살 가운데 두고
우리는 둘이 되었다

푸른 하늘은 나는
저 비둘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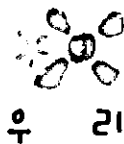
부엌 땅을
자유로이 가건만

는 물론 생이별한
우리들은
아직도 가지 못하고
그리움만 쌓인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태극기 들고
만세 외치는 날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쇠덩이
없어는 날
그 서글픈 손
다시 잡는 날
그런 날 그런 날





우 리

서혜원
일천초 6학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남·부 이렇게 나누지만
우린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달이에요.
반쪽이 떨어져 빛난대요.
나중에 반쪽이 붙어서
웃으며 빛난대요.

우리 나라 토끼는
반쪽 토끼래요.
머리, 몸이 아픈대요.
휴전선 때문에 아픈대요.

우리는 2인 1역을 한 대요.
한 가족인데
아빠가 2명이라요.



한 나라인데...
한 민족인데요...

우리는 바다와 나무래요.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에게
어짐없이 베풀어가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
달려간대요.
통일의 길 따라 달려간대요.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사한대요.



푸르던 6월에

신화연

응촌중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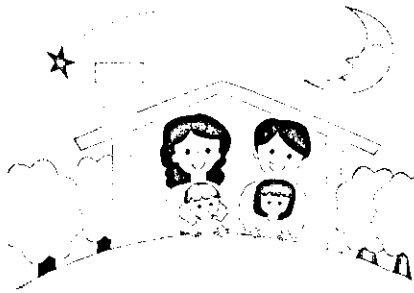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라는 이름은 멀기만 합니다.

죽는 날까지
못내 그리움을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산·가·족이란 이름이
왜 이리렇게 아픈지요.

그저 북에, 남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나면
실새 없이 흐르는 눈물에
마음은 새하얗게 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날
그리움의 강물이
하나되어 흐를 그 날
그날이면
우리도 이 푸른 6월
마냥 웃을 수 있겠죠.





다 짐

김종국
중앙고 2학년

어젯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그 서글픈 손장죽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시네요
 "누가 백두대간을 갈라놓으래 이놈아"
 저를 향해 호통치시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으니가요
 룡천역이 폭파되었다고
 모금함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저는 제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동전 몇 개 널빤이였어요
 정말 잘 한 일이 없죠?

몇 년전 TV에 이산가족 상봉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한 분과 할아버지의 어머니
 제 가족이 아니어서
 눈물도 안나왔어요 그런데 얼마전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알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 말이예요

그래서 하루를 꼬박 꿈었습니다
북한 어린이의 불룩한 배
꼭 꺼진 눈, 이제야 저도 느낍니다.
고작 하루만에...
불쌍한 그 아이들은 항상 겪는 일인데 말이죠
저 정말 잘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죠?

겨우 이제야 이해가 가고
제 마음 한 구석으로 깊이 느껴요.
남쪽과 북쪽이 함께 약속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저는 4년 전보다 더 진실하게 다짐합니다.
그들을 제 형제처럼 생각하기로

경기도



- 늦기 전에
- 함께 하는 남과 북
- 내가 울겠다
- 지우개와 연필
- 그 고향에 가고 싶다
- 서로 손 잡게 하라
- 빗방울에게 빌어 본 소원
- 50년
- 하늘엔 금이 없다





농기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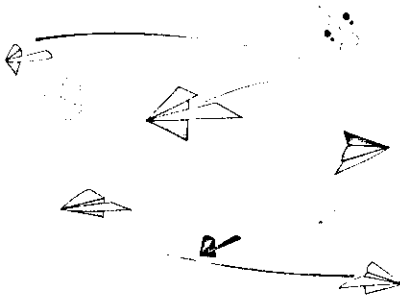
심형태
서당초 6학년

찰흙 한 덩어리
두 토막 내어서
뭘 만들까?
탑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어 보고
에이, 재미없다!
다시 붙이자
찰싹!
마치 형제처럼 붙는 찰흙

또 다른 찰흙 한 덩어리
두 토막 내어 놓고
"형, 나가서 놀자!"
동생의 꼬임에 놀고 오니
딱딱하게 굳어 있는 찰흙
다시 붙여야지
딱!
마치 원수처럼 부딪치는 찰흙



우리도 늦기 전에
하나가 되었으면...
휴전선이 굳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마르기 전에
형제 같은 것 꺼낸 찰흙처럼





함께 하는 남과 북

정현채

남수원중 2학년

이 곳에 꽃이 피면
그 곳에서도 꽃이 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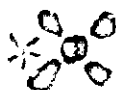
이 곳에 비가 오면
그 곳에서도 비가 오겠지요

이 곳에 바람이 불면
그 곳에서도 바람이 불겠지요

이 곳에 눈이 내리면
그 곳에서도 눈이 내리겠지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면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할까요?
우리가 아픈 만큼
그들도 아플 것지요



함께 손잡고
길을 거닐 수는 없을까요

함께 손잡고
뛰어 놀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기다리기 싫어요
이제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들이 아픈 것도
그들이 슬픈 것도 싫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헝헝 자유롭게 날아 봅시다



내가 울겠다

양혜인

분당영덕여고 1학년

저기 한 눈을 잃어버린 이의,
여기 한 팔을 잃어버린 이의,
반쪽뿐인 몸과 마음을 보이라

바싹 말라버린 가슴
울다 지친 파랑새야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한 방울 눈물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 울겠다

반백년 세월 훨훨 날아
이리온 오너라
우리 왼손 오른손 겹쳐 주고
길게 묵배어 기다리나니,

파랑새야
네 고운 깃털이



온 세상 푸근히 감사안을 그 날

흔적 없이 사라질
이 땅의 날카로운 흉터를
미소로 바라보겠다

백두산에서 푸른 너의 날개짓이
한라산에서 하얀 너의 웃음이
모두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 순간,
그 순간,
바로 그 날을 위해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기뻐서 울겠다
뜨겁게 가슴으로 소리내어 울겠다



지우개와 연필

이 현 지
도당초 5학년

나는 지우개가
되고 싶어요
새하얀 지우개로
전쟁의 흔적을 지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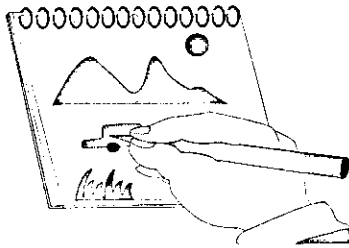
피로 물든
휴전선을 지우고
가슴 아픈
이산 가족의
눈물을 지우고
50년 분단의
한을 지울래요

나는 연필이
되고 싶어요

가이만 연필로
통일의 그 날을 그릴래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온 천지 알록달록
무궁화 꽃을 그리고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그려주세요





그 곳에 가고 싶다

최선아
탄현중 3학년

헐헐 날아 우리 누이 있는 곳
저기 철조망 너머
서글피 울고 있는 우리 누이 있는 곳
그 곳에 가고 싶다

50년의 긴 강줄기 단숨에 넘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누이 곁으로 가고 싶다

50년의 두터운 벽 단숨에 넘어
우리 누이 웃음 보러
그 곳에 가고 싶다

50년의 긴 세월에
온통 새하얀 머리칼
50년의 긴 세월에
이룰 수 없던 가족과 행복



우리 누이 한 번만 보았으면...
우리 누이 한 번만 안았으면...
우리 누이 우리 누이
분홍빛 어여쁜 우리 누이

저기 멀리 북쪽 하늘
우리 누이 있는 저 하늘은
오늘도 보라빛이다

저기 멀리 보라빛...
우리 누이 있는 곳
그곳에
가
고
싶
다



서로 손 잡게 하라

이 해 인
한광여고 1학년

어리석은 사람들아,
상처 입은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으나,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하체에
저들의 눈 속에

붉은 빛으로 물들여진
세상이 아직도 보이니...
'씻어주어라' 하고 부르짖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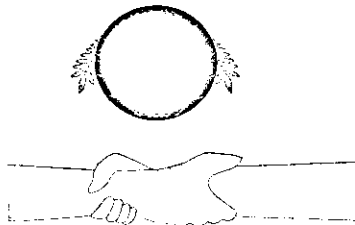
너희들의 더러운 입으로
위로 하지 말라,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지나간 세월을 만지지 말라,
너희들의 더러운 눈물로
세상을 씻으려 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전쟁의 피로 물들여진
가엾은 영혼들을,

이제 서로 손잡게 하라





빗방울에게 빌어 본 소원

박하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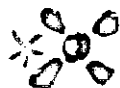
마석초 6학년

하늘에서 푹푹푹
떨어지는 빗방울

빗방울 하나하나에
소원을 빌어봅니다

푹! 빗방울 한 방울에
복에 있는 내 친구들과
넓고 넓은 운동장을
맘껏 달려보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푹! 빗방울 한 방울에
한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 하리에 묶여있는 허리띠를
풀어주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담은 빗방울들이 모인

물웅덩이에게로 가

한데 모여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는

너희들처럼

나도 부한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알콩달콩 속삭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빗방울들에게 소원을 빌다가

어느 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빗방울들이

나의 큰 소원을 들어주는 꿈을...



50년

이 미 나

청평중 2학년

50년 전 전쟁은
무엇을 낳았는가?
무엇이 되었는가?

반만년 민족에
선을 그어
우리의 가슴에
상처 주어

우리의 눈과 가슴엔
끝없는 눈물과
끝없는 고통만이
파도처럼 밀려 오지만

아
언제나 이어져
행복의 노래로 울려 퍼질까



언제나 이어져
회영청 맑게 하늘을 수놓을까

그 소리 하늘 향해
그 소리 크게 치솟으면
그 때나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동무

오늘도 나는 그 소리를
사랑의 노래 그 소리를
살며시 한가락 꺼내어
바람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려한다

나머지 한가락을 속삭여 줄
사람을 기다리며...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라며



하늘엔 금이 없다

김민지

부천여고 2학년

할배는 오늘도 멍하니 먼 데 하늘만 바라보시다
자글한 주름글 마디마디로 눈물샘이 고였습시다.

할배 할배 어이 우오?

금잔디 텅골 적이 있었더랬다

흙투성이 손으로 장난질 치다 너와 나 마주 누운
그 파아란 하늘가엔 실오라기 금 하나도 없었더라고

할배 할배 어이 우오?

동틀 녘 이 맘 때가 잊혀지지 않더이다

머얼리 너를 그리 남겨두고

산 넘으며 몰래 부린 눈물들이 저기 저렇게
반짝이지 않더냐고

할배 할배 어이 우오?



오늘 밤도 너는 내게 달려왔더구나
백한 떨림으로 말없이 부등켜 안아보드니만
우리는 계집 눈물짓 대신 목젓이 흰하도록
마주 웃었더랬지

이제 할배는 당신 생전에 그토록 바라만 보시던
하늘가에 계십니다.

지금쯤 누누이 이르셨던 금 없는 하늘에 닿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내 행복하시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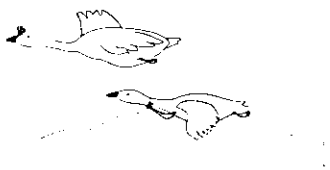
나는 문득 할배의 시선이 머물던 곳을 바라보다
코 끝이 시큰해져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아, 그랬습니다.

할배가 바라보신 것은 무수한 산과 높은 건물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금너머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나는 잠시동안 할배의 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서툰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 금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마음과 피를 가르는 금들이
하루 빨리 지워지기를



강원도



- 우리 모두 청소해요
- 철책에 핀 들꽃을 보며
 - 사복자리
 - 한마을 이웃처럼
 - 꽃
 - 할아버지의 날개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 산아, 산아
 - 무궁화





우리 모두 청소해요

최서연
정선초 5학년

우리 모두 청소해요.
한반도에 그려진
검은색 금을

지우개로 쓱싹쓱싹
청소기로 윙윙
지우어버려요.

우리 모두 청소해요.
우리 마음에 그려진
검은색 그림자를

한 마음으로 뽀뽀
사랑으로 쓱싹쓱싹
지우어버려요.



함경북도 땅 끝 마을에서
제주도 섬 마을까지
모두 모두 손잡고
통일 노래 부르며
개강이 청소해요.





철책에 핀 들꽃을 보며

김지윤
사내중 2학년

밤은 햇살 비추는 승리전망대
 한 군인의 무덤가에 빨갛게 핀 들꽃 하나
 그날 흘린 더운 피
 오십년을 기다려 다시 살았나
 원망이 꽃이 된 듯
 소망이 꽃이 된 듯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려
 철조망을 넘어 보네
 소리 없이 매달려
 부르고 있네

저 무덤 주인도
 나와 같은 어린시절 있었을 테지
 같이 놀던 동무들도 많았을 테지
 엄마 이빠 동생들도 있었을 테지
 저 꽃처럼 어여쁜 여자친구도...



나라 위해 총을 쥐고
전선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엔
몹시도 서럽게 울었을 테지
어머니는 목이 메다 혼절했겠지

그 울음 그 목소리 잊지 못해서
오십년을 한결같이 꽃을 피우고
저렇게 철조망에 몸을 기대던 채
새빨갳게 몸마다 피가 배도록
소리없이 부르고 또 부르겠지

언제일가 저 철조망 걷어버리고
저 무덤을 고향으로 옮겨 줄 날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면서
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사 복 자 리

정 현 아

신철원고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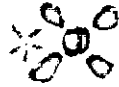
그리움에 미칠 것 같던 날들
쓰라림과 외로움에 떨던 날들
사무치는 그 마음을 깊이 감추며
애써 태연한 척 살아왔소.

허나 -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볍고 무거움이 어디 있었소.
보고파서 헤지고 멍든 가슴에
중하고 안 중하고가 어디 있었소.

이 신청서 한 장에
어찌 그 마음을 다 녹여낼 수 있었소.

지금 내 눈에 흐르는 건
심장의 피고름이오.
이 술병에 담겨 있는 건



한의 메아리

잘 계시오 님

내 몸뚱이단
저 가마귀를 위해
님 한가운데에 놓아두시오.

그리운 얼굴 만나
상전 못해드렸던 호도
오래
오래
오래
오래하며

자식답게 살아보고 싶소.

잘 계시오 님

자알 계시오 님



한 마을 이웃처럼

윤도영
응암초 6학년

한 마을 한 이웃처럼
정답게 오순도순

손이네 집, 철수네 집처럼
친하네 즐겁게

부침개도 나눠 먹고
글목길도 함께 살고

담 없는 이웃처럼
미움 없는 동무처럼

총부리도 거두고
철조망도 없애고

차가운 아픔의 눈빛은
따뜻한 기쁨의 눈빛은



한 마을 한 이웃처럼
사이좋게 아름답게
어제 다투고도
상추쌈 한 바구니로 오늘 같이 어울리고

여리고 순한 아이처럼
서로 웃으며, 어깨 동무하며

세계로 세계로
앞으로 앞으로

우리의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민 소 영
삼척여중 3학년

부작의 한기는
뽕속까지 파고 든다 하였다
압록의 강물은
늘 검푸르다 하였다.
길내
꽃은 피지 않을 거라 하였다.

부작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짓는
할아버지에게
그리 말삼드릴 수 없었다.
헤어진 피땀이름 찾는
할머니의 마음에
그리 못을 박을 순 없었다.

친구에게 충을 겨누어야 했던
영화를 보며,
그리 독하게 생각할 순 없었다.



증오는 또 다시 비극을 부른다고,
또 다른 비극으로
꽃을 짓밟아야 한다고,
증오를 품을 수 없었다.

북쪽에도 햇별은
따스히 비친다 하였다.
압록의 강물은 그 햇별에
오색으로 빛난다 하였다.

끝내
꽃은 눈물로 필 것이라 하였다.
끝끝내,
꽃은 그렇게 만발할 것이라 하였다.



할아버지의 날개

고 가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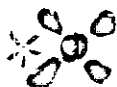
양양여고 1학년

달무리가 그윽한 밤
반짝이는 별들은
작년에 새가 되어 가신
우리 할배 눈물
별빛이 눈 안에 들어온다.

난 안먹는다. 밥 주라고

까맣고 길다란, 냄새만 맡아도 좋은
짜장면을 먹지 않는 우리 할배
시큼하고 달달한 단무지의 맛도 모르는 우리 할배

왜 안 먹어. 짜장면 싫어? 조금만 먹어봐
그거 꿀벌기도 싫다
이해 할 수 없는 우리 할배



우리 할배 고향은 개성.
라디오에 동백꽃 노래가
시냇물처럼 졸졸 흘러나오면
할배 마음은 강물처럼 일렁일렁.
이북에 두고 온 가족애기며
개망초 같던 딸 아이 이야기 주춤주춤.
두 눈 지그시 감고 내게
계순아 계순아.

그 할배 가던 날.
하늘에 눈물 새기러 가던 날.
할배 나더러,
계순이 짜장면 니가 많이 먹어라.

딸자식 먹고파 하던
짜장면 못 사주고 내려 와서
기다리던지 어언 50년의 세월.



살아 생전 달아 드리지 못했던 할배의 날개.
아직도, 정말 아직도 내 맘속에 남아있는
달아 드리지 못한 할배의 날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정 신 애

문막초 6학년

5월 달 달력을 한 장 찢고 나니
우리 집 내 방에 걸린 달력이
6월 달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옆집 다래의 생일도
앞집 봉이의 생일도
잊지 말자 축하해 주자고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각각의 열두 가지의 달력 옷이
한 장 한 장 갈아 입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케익을 먹을 수 있는 생일도
축하해 줄 기념일도 잔뜩 쳐져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



그만 지나쳐버린 날이 있었다.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

매번 달력을 넘길 때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빨간 동그라미를 쳐주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내려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달력을 가리켜 보이겠지

나라를 위해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쳤던

호국보훈의 이 날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산아, 산아

이 예 지

장성여중 1학년

삼천리 금수강산
구름은 남과 북
자유로이 오가고

밤하늘의 별들도
밤새워 오순도순 정답기만 한데

산아,
넌 부럽지도 않니

허리를 동여 맨
저 휴전선
아, 지루하고
답답하구나

산아,
넌 원통하지도 않니



보아라.

저 넘실거리며 흐르는 강물들

먼 길

멀다 않고 흘러흘러

바다에서 서로 만나

기뻐 열싸안고

넘실대며 저렇게 춤을 추는데

산아, 넌 저 우뚝대며 노래하는

바닷물이 보이지도 않니

아, 반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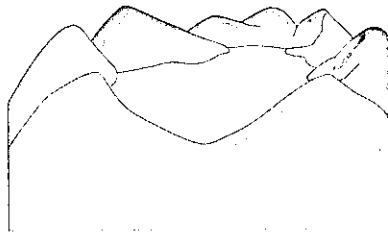
넌, 왜 마주보고 우뚝 선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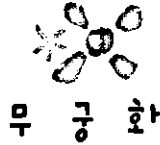
말이 없니



이제 그만,
손과 손 마주잡고
힘차게 힘차게
흔들어 보아라

산아!
백두산아, 한라산아.





장 일 호
강원고 2학년

갈라진 사람은
애뜻함
그리움
그 너머다.

뿌리 같은
두 가지 이견만
같은 하늘보고, 땅위 서있는
두 가지 이견만
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남으로
자른 곳을 뺏어가는
이별의 무궁화 가지여!

고요히 흐르는 하나의 역사는 귀중한 것
두 역사의 꽃봉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외침!



칼날진 겨울, 그 속에서
움크리고, 움크린
무궁화를 피어내기 위해
이별 아닌,
사랑이어야만 한다.

이젠, 두 가지
한 뿌리, 하나의 마음으로
찬란한 슬픔 속에서
백의 무궁화를 피어내리!

충청북도



- 너와 내가 손잡고
- 6월이 오면
-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 날까지
- 작아던 날씨가
- 너에게
- 지평선 너머...
- 오늘은
- 비방의 소리 멎던 날
- 뒷줄





너와 내가 손잡고

유 경 은
봉덕초 6학년

지난 4월
피와 눈물로 얼룩진
룡천 대참사
화상으로 뒤덮인
너희들 모습 보았어

너무 아파 울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너희 모습
TV를 통해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하지만 난 들었어
너희들의 뛰는 심장소리를
통일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겠다는...

그래, 우리가 해내지!
너와 내가 손잡고
통일을 이루자!



비난하는 기계 화성기와 전광판
철거했다는 소식이 있어
얼마나 기쁘니?

휴전선만 남았어
힘을 내!
우리가 해 낼 거야

반세기를 넘긴 한민족의 숙제인
하나되는 통일을
너와 내가 손잡고
꼭 이루자
하나 되는 통일을!



6월이 오면

오 난 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 2학년

6월

깜깜한 새벽 하늘에
통일의 그리움 수 놓일 때면
할머니의 슬픔은 시작되네

높고 온 가족의
오래된 그리움이
시퍼런 멍이 되어
박제된 사진으로만 남아있네

풀밭 넘어 날아 오는
가족의 숨소리를
어디서나 느끼고 싶어
날마다 버선 벗은 맨발로 풀밭 걷는 할머니

TV를 끌고 안은 채
이산가족 상봉 모습에
넋을 뺏긴 할머니



어느 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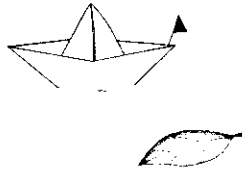
분단의 아픔은
주름 되어 흐르고
낯게 굽은 허리는
눈꽃 되어 피어나네

나는

흐날리는 꽃잎 되어
소식 없던 50여년
통일의 빛
온누리에 펼치고
가족의 따스한 숨결의 빛
순간 문 두드림 없이
꿈결에 전해 드리려네



오늘도 버선 벗은 발로
고운님 오시길 바라는 새색시 마냥
두발 곱게 모으고
6월의 그리움 떠올리시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날까지

김은애
일신여고 2학년

너는 아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된다는 걸

서로가 얼마만인지
너는 아니?
내가 너의 얼굴을
얼마나 애리게 그려냈는데...

얼마 전에 너를 봤어
나에게 뒤 모습만 보이던 네가
창조망을 사이에 두고
뒤를 돌아봤을 때

너는 알았니?
너와 내가
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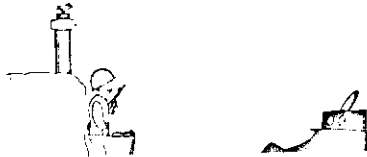
이제 알 것 같아
작게 흔들리던 너의 어깨가
나를 향하는 순간
너와 나의 눈에선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단 걸

너와 나
비록
반으로 나누었지만

그거 아니?
너와 내가 마주 본
그 순간부터
서로의 거울이 되어버렸단 걸



언제나 함께 할거야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 날까지





작았던 날개

도 슬 기
창신초 6학년

"으르릉, 쿵쿵!"
빨강과 파랑이 싸울때
'움짤'하고 놀라던
작았던 날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통일'이라는,
'평화'라는 목적지를 향해
날개짓 하던 작은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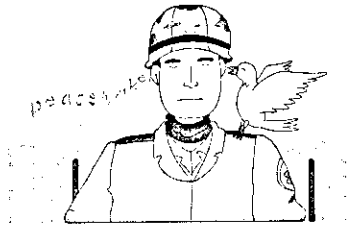
지쳐간대요
'속마음을 숨기지 말아요'
'함께해 봐요'하던 목소리도
힘이 없대요

우리가 지켜주어야죠
보살펴 주어야죠
보이지 않나요?



작지만, 작아도
밝은 빛을 내뿜던
작은 날개가 없다면,
빛은 잃게 되면
우린 함께 할 의미가
없는걸요

싸워서 이길 의미가
없는걸요





너에게

이 웅 건
가덕중 3학년

다른 책을 읽고
다른 노래를 부르며
생각에 담을 쌓아 온

너를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웃는 얼굴도 떠올릴 수 없고
네가 사는 땅도 그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한 땅에 살던 그 어느 때
장엄한 백두대간 허리가 끊겼다
총소리로 이 땅이 요동칠 때
새도 짐승도 놀라 숨었다더라

국토의 끊어진 허리춤에선
가족 잃고 우는
이산 가족의 피눈물이 흐르는구나
너도 보았느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이대로 영영 갈라설 수는 없어

다급하게 소리치고픈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는가?

너와 나 함께 백두대간 올라
아팠던 6월의 기억을
추억으로 말하면 안되겠니?
우리 민족 하나 되어 즐거워 할
그 날을 함께 염원하면 안되겠느냐?

대답해다오,
달려와다오.
너의 손을 기다린다.



지평선 너머...

연혜진

청주농업고 3학년

지평선 너머 저어기 보이는 저 곳은
우리 할머니 그리워 하시던
고향

우리 할머니의 아픔이
우리 민족 설움 되어서
우리 마음 쓰라리게 한다

비록 내가 가보진 못했지만
할머니 그리워 하신 고향이
마치 오래된 내 고향인듯
표근하게 느껴진다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가 꿈을 꾸고
동무들과 뛰놀던 그 곳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우리 반짝 조국, 할머니 추억이
담겨 있던 우리 반짝 조국...

지평선 너머 보이는 저 곳
우리 할머니 그리워 하는 저 곳
지금은 아파하여
그리워 하는 곳 이지만

이제는 더이상 아파하지 않고
서로 웃으며 행복할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소망하여
꿈을 꾸어 본다



오늘은

장성동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 6학년

54년이란 짧은 세월을 잊을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딱지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용서하게 하소서

광천역 폭발사고 때 보여준 뜨거운 정으로
오늘은 화해하게 하소서

수많은 탈북자들 어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와
오늘은 편히 쉬게 하소서

남북이 서로 위문하며 사랑하며
오늘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겨레의 염원이 통일을 위해
오늘은 한마음 한뜻되게 하소서



비방의 소리 멎던 날

이지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 1학년

시그럽게 울려 퍼지던
비방의 소리 멎던 날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춤추며
서론가 열사안고 행복의 문은 두드렸지

애달프게 울어대던
비방의 소리 멎던 날
그리움으로 얼룩졌던 눈가에 미소 번지고
서글픔으로 멎들었던 작은 가슴에도 햇살 비추네

목 놓아 소리치던
비방의 소리 멎던 날
작은 떨림에도 놀라던 눈망울
사랑의 환호성이 되어
멀리서 손짓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네



혹성기 떼어내던 떨리던 손길
감격의 눈물로 대신 전하고
42년간의 지나간 시간
그 시간 이제 문을 닫네

오랜 기다림
보이지 않던 희망의 빛
돌아오지 않던 메아리는
뒤로하고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급한 마음 몰아 세우지만
기다림으로 쌓아 올린 작은 성
너무나 간절해



이제 동해선의 시원스러운 바람 사이로
통일이란 옛 말소리
눈거름으로 날아오네





반 읍 정

금천고 1학년

우리는 싸웠다
질은 안개 눈 가리어
형제와 친구에게 겨는 총으로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줄 모르고

수없이 많은 피는 바다 이루고
끝없는 전쟁에 지친 몸 일으키니
그 앞에 남은 것은 쇠조각처럼
차갑디 차가운 분단의 현실

그러나 보아라

차가운 철조망도
서로 겨는 총부리도
뜨거운 우리 땀줄
꿈을 손 없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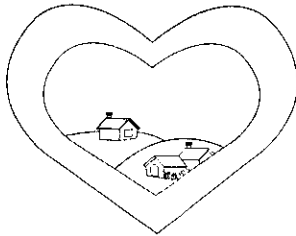
반만 년 이어 온 우리의 핏줄
아직도 맥박소리 사그라들지 않아
역전히 쿵 쿵 뛰는 울림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데

우리가 하나 되면
이 땅 여기저기
막혔던 피가 돌고
잠든 심장 눈을 뜨고
그 힘찬 맥박소리에
지축이 우르릉 울리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감격의 함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진정 하나되면
마주잡은 두 손과
뜨거운 눈뭍 한 줄기



아픔과 한이 어찌 남아 있으며
어리석은 미움도
또한 어니 녹아내리겠는가



충청남도



- 통일외 빨간 저금통
- 갈 수 없는 그곳
- 그 날
-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 노인교 안가
 - 울어라 심장아
 - 일년내내
 - 꽃보다 아름답게
 - 그리운 내 사랑





통일의 빨간 저금통

최수경

초라초 6학년

고실 문 열면
 빨강고 통통한 돼지 저금통
 얼른 살찌고 싶어요
 배 잔뜩 부풀어 올라
 넘실넘실 뽕천으로 가고 싶어요

내 동전 한 닢 꺼내
 얼굴에 상처 발라주고
 내 동전 한 닢 꺼내
 다리에 하얀 붕대 감아주고
 내 동전 한 닢 꺼내
 고통의 소리 잠들게 하고 싶어요

말투도 다르고
 공부도 달라도



쫑 찢어진 단
낮은 쿠키잔등
내 얼굴 많은 친구들

오 늘도
먹고 싶은 떡볶이 못 본 척
시원한 아이스크림 고개 돌리며
공천으로 달려가서
북한 친구들 상처 어루만지는

땡그랑!
땡 땡그랑!
통통하게 살찌가는 돼지 저금통
우리반 통일의 빨간 저금통.



갈 수 없는 그곳

김민정
한산여중 3학년

터져 버린 기차 옆에 있었을,
가나다라 배웠다고
좋아했을 동생들은
온데 간데 없고,

소달구지가
벽돌을 나르고
포크레인 한 대가
무색하해 보이는 그곳.

새파란 입술로
어머니를 불러보지만,
양양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돌아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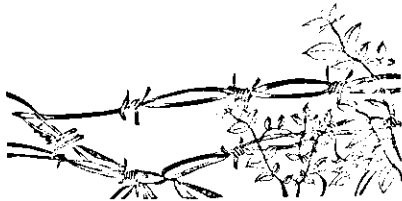
아직은
갈 수 없는 그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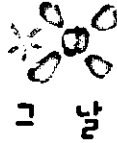


천조망 그림에
나팔꽃은
통일의 울음으로 피는가.

도울 수 없는 미안함에
갈 수 없는 서러움에
전화기 단추만
돌려 댄 오름은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사고 이튿날.





오 소 정
홍성여고 3학년

아들아!

무심한 세월은
너와 나의 시간을
매정하게 삼키며
50년을 거스르고 있구나

오늘도 어머니는
너의 땅을 찾는 새를 보고
함께 갈 수 없는 이 맘을 원망하며
너를 향한 하루를 보낸다

아들아!

외로움에 바랜 너의 영혼이
살며시 다가와 안기면
"오오냐"하고 보듬어 줄
따스한 가슴 여기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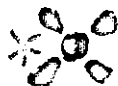


끝내 벽을 넘지 못하는
애절한 그 모습
지친 세월 속에
통한을 토해낸다

아들아!

이제 너도 백발노인 되었지만
너를 찾는 거친 손
50년 허공을
쓸 새 없이 휘젓는다.

메마른 손바닥
네가 남긴 온기
아직도 느끼기에
쓰린 가슴 매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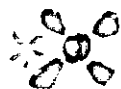


행여 나아갈까 두려워
두 손을 꼭 쥐고 있다
조심스레 살짝 펴보는
어미의 마음 너도 느껴지느냐

아들아!

번져 가는 그리움
너의 땅을 거슬러 올라
네가 딛은 양지에 스미게 하여
한가득 너를 품에 안아주마

잠시만
아주 잠시 동안만
그 땅의 온기로
어미를 간직하고 있거라



칠층 같던 어둠을 가른
새벽 달빛이 내게 약속한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제는 알았기에

반 조각 인생 속에
발끝까지 서린 슬픔
한 멋진 인고의 응어리
이제는 거두려나

아들아!

그 날의 설레임을
뱀알갈게 머금은 수줍은 햇살이
성난 파도를 조용히 타이르며
내 가슴속에 피어나고 있다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

안민경
당암초 5학년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 쿵쿵다 끝말잇기 하자
 설악산 쿵쿵다
 산골 쿵쿵다
 골기퍼 쿵쿵다
 잠깐 골기퍼가 뭐냐 문지기지
 문지기가 뭐냐 골기퍼지 하하하
 북한 친구 백두 때문에
 매일 매일 웃어요.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쿵쿵다 끝말잇기 하자
 강타기 쿵쿵다



기차표 쿵쿵다
표준어 쿵쿵다
잠깐 표준어가 뭐이네 문화어지
문화어가 뭐냐 표준어지 하하하
남한 친구 한라 때문에
매일 매일 웃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남한 말, 북한 말
서로 서로 맞추어가며
끝말잇기 하느라
통일 학교의 쉬는 시간
너무너무 짧지요.



노인과 안개

오 채 린
천안백석중 1학년

이른 아침
나들 안개 속을 걸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신호등도 나오고 전봇대도 나오고
마른가지 늙은 나무도 보입니다.

그리도 영성한 의족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는 노인도 나옵니다.
노인은 말없이 묵묵히 걸어갈 따름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도 노인을 지나가고
부릉 부릉 자동차도 노인을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노인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달이난 세월의 발자국 따라
그 언젠가 짐을 짊어졌던 어깨도 내려앉고
그 언젠가 굳게 의형제 맺은 전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지금
노인에게에는 밭고랑보다 깊은 주름과
자식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의족만 남아있을 뿐입니
다.

태양보다 찬란한 훈장도
달이 잊지 않고 나오는 보훈연금도
노인의 한숨을 내쫓지는 못합니다.

노인의 젊음과 꿈을 맞바꾼 조국위에
세월이 깔아 놓은 안개들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숨을 크게 몰아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덮었던 안개를 저 멀리로 날려 보내고
노인의 한숨을 거둬 내야 합니다.



울어라 심장이아

이재훈
천안중앙고 3학년

성난 호마에
비명조차 리버렸었다.
더 이상 꽃은 없다.
불리버린 꽃마저 재로 날리고
나뭇구는 책가방과 운동화
선연한 피자국 보다 아프다

울어라 심장이아
한 멧한 대지를 안고 울어보자
너는 어찌 눈물을 모르는가
중간고사 걱정 사이 사이
눈과 귀와 입은 슬피하면서
울지 못하는 심장이아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어라 심장이아



태풍 같은 불길 휩쓸고 간 자리에
나 심장의 피눈물 흘려
채 못피고 태버린 꽃들
들꽃으로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라





오혜리

부적초 4학년

북쪽에 사는 내 형제 자매들아.
봄에는,
하우스에서 딸기 따고
동네 낮은 산에선 숙과 냉이 뜯고
너른 들판에서 네 잎 클로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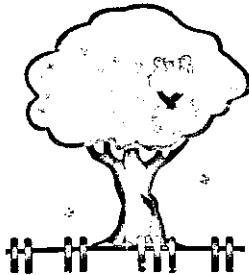
북쪽의 어려운 내 형제 자매들아.
여름엔,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하얀 모래사장에서 두꺼비집 지으며 놀아보자

북쪽에 상처 입은 내 형제 자매들아.
가을엔,
금강산으로 단풍놀이 가고
낙엽이 떨어질 땐 예쁜 나뭇잎 주우러 가자



북쪽에 사는 내 형제자매들아.
겨울엔,
언덕에서 눈썰매 타고
짹짹 언덕에서는 썰매를 타자

북쪽에 사는 내 형제 자매들아.
일년 내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달려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남자





꽃보다 아름답게

전 세계
서천중 3학년

54년 전 그 날도
거리는 평화로웠다.
다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까지는...

54년 전 그 날도
사람들은 분주하였다.
다만 그 아픔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는...

그 누가 말하였던가.
그 소리, 그 아픔이
5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지속된 줄을...

그 누가 흐느꼈던가.
그 소리, 그 아픔에



자신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충격을 느낄 줄은...

그날의 총소리, 그 날의 비명소리
가죽을 잃은 아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그 소리와 아픔을 간직한 채
54년이 지나갔지만

하늘의 울음소리, 땅의 울음소리
총에 맞은 아픔, 정신을 잃어가는 아픔
그 소리와 아픔을 간직한 채
54년이 지나갔지만

이제 후손들은 그 소리를 모른다.
다만 자연만이
그 소리를 기억할 뿐이다.



이제 자손들은 그 아픔을 모른다.
다만 역사만이
그 아픔을 기록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작지만 소박한 등불이 될 거라는 것을
그 멀고 험난함이
우리의 만남을 더 간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랜 헤어짐 끝에 두 손 마주 잡은 길목에서
꽃보다 아름답게 미소 지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운 내 사랑

여철

장항고 3학년

가여운 사랑이여.
그대 거기 앉아 날 기다리오.

두만강 건너 그대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갈 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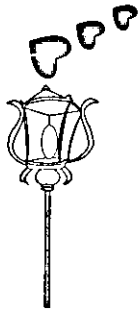
별거미취 피는 아침이면
그리운 그대면 무얼하오.

혹여나 감자하나 없어
배고픔에 울고 있진 않을려나

하늘에 빌어 천리마를 타고
다가갈 수 없는 그대에게 가
오늘은 관찮은지 물어보겠소.



나무 위에 있는 새들도
행복을 노래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못 부르겠소.
그리운 내 사랑 그대여.
잠시만 거기 앉아 기다리오.
나 언젠가 그대를 찾아갈 터니



전라북도



- 휴전선의 봄
- 흔적(痕迹)
- 할아버지의 인생 마루에서
- 통일외 물꼬
- 파랑새
- 북으로의 향애
- 나는 희망입니다
- 통일
- 종이 비행기





휴전선의 봄

장 제 연
북일초 5학년

두동강이 난 역사의 두안길
한반도의 오천년 숨결이 멈추어
고요가 해와 달을 잠재우던 곳
휴전선...

비 맞아 뒤뜰린 문짝처럼
이념과 갈등이 빚어낸
아귀 틀린 역사 속에
외로이 힘겨움에 고개 떨구던 곳
휴전선...

하지만, 산과 물이 하나되어 흐르듯
남·북한 동포의 마음은
씨실과 날실이 되고
직녀가 베를 뜰 잡듯



우리네 마음들은
결 고운 옷감이 되었네.

이제, 보고 싶던 형제 자매의
눈물이 엉키고
남·북한의 예술과 문화가
다리를 넘나고
정치와 이념도 색깔을 죽이며 오가는
오만가지의 사연과 역사가
봄을 맞는 곳 휴전선

연초록 새순이 제 키를 더하고
활짝 핀 산벚꽃이 바람에
꽃비 내리는 이 봄날
휴전선에는 꿈지락거리는 희망들이
땅 속으로 땅 속으로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테지.



흔적(痕迹)

김 은 경

금성여중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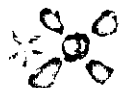
1

이제 돌아가려 해.

왜 이리도
어리석은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미어지게 어둡던 그 세월
온 땅에 가득 가로지른 상처인데
그가짓 선 하나 건너뛰는 것으로
잊은 듯 살아온 탓에
모르는 새
굳은살로 덮이고 있었나봐.

시리도록 멍춘 손길,
멋은 마음이야



달아오른 마음으로
밝은 손짓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2

이젠 시작하려 해.

왜 이리도
어리석은 몸짓으로
이 자리에 남아 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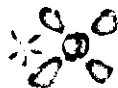
기쁨의 아우성은 멀기만 하고
하늘을 가득 채워버린 아픔인데
그까짓 어두운 그림자 지워버리는 것으로



감추고 싶어 덮어둔 가담에
모르는 새
새끼말게 명들었나봐.

가녀리게 멈춘 발길,
멧은 눈짓이야
뜨거운 가슴으로
맑은 웃음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할아버지의 인생 마루에서

노희철

정읍호남고 1학년

시냇물, 새소리
 많은 숨결로 되돌아 온 사월의 봄날,
 저만치 구름이 간다.
 고향던 누이 모습도 함께 흘러간다.

사월 다 지나는데
 아직도 피지 못한 꽃망울
 그 한 끝에 매달린 그리움
 노랗게 신음 물들고
 생전에 만날지 못 만날지
 안개 두꺼워 기약 없는 것만 같아라.

초승달이 그믐달이 되고
 그믐달 다시 돌아와
 보름달 되는 세월 속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그리운 고향 길



지금이라도 가야할 그리운 고향 가자.
앞산에 걸친 저 구름 손짓하다
지치고 지쳐
끝내 먹구름 되어 빗물로 흐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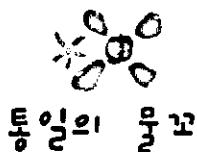
비와 바람처럼
그리도 잘 어울려주던 내 누이여,
그 누구 때문에
아침안개처럼 흩어졌을까.

반 백년이 지나
이제 멀어진 눈물 속
고향 언덕의 내 누이여!
점은 날 다 사라져간
늙으신 할아버지
꿈조차 정점이 사라지는가.



봄만 되면 할아버지만 들으시는
누이 같은 꽃말을 신음소리
이제 치매조차 더군와서
기억조차 희미한
할아버지의 옛 고향 부엌하늘

할아버지 인생 마루
다 들리기 전
반 백년의 상처 아무는 꽃씨 되어
주름 깊은 수심 곁에
이슬꽃 피우드리고자
남북 하나됨을 선물로 주옵소서
기도해본다.



김 찬 미
순창초 6학년

"오머니,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을

한에 담아...

머리카락으로 세어버린 세월

바다보다 깊었네

"오머니, 보고 싶습니다."

기약없는 만남을

눈에 새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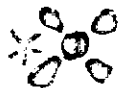
기다림에 지쳐버린 54년 그리움

산보다 높겠네.

"오머니, 이제 왔습니다."

함께 늙은 세월이 믿기지 않아

서로의 주름살 너머가 안락가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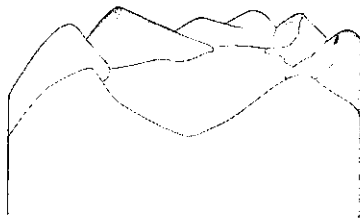
서로의 눈물만 말없이 닦아주다
통곡과 오열로도
못다할 원통한 세월
밤을 새웠네.

곰디고운 당신의 얼굴
꿈속의 얼굴과 너무 닳설어
그리웠던 세월은
서러운 눈물 앞에
씻겨내려 갑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꿈만 같은 기회가 또 온다면
부모님의 산소나마
찾아 뵙고 싶습니다."
울먹이는 거래의 소원
누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지요.
꿈길로만 오고가던 54년 세월
흐린 눈물은 강길도 열겠습니다.
54년 막혀온 세월의 강은
어머니의 눈물
자식의 눈물
그리고 당신의 눈물이면
통일의 물꼬도 열려 갑니다.





파랑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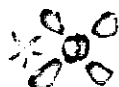
박하주

고산중 3학년

오늘도
맑은 유리창에
젖은 눈을 말기고,
저 너머 침묵한 그 땅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나의 낮은
파랑새가 되어,
그리움이 묻은
푸른 하늘을 넘어,
푸른 물결 일렁이는
보리밭을 지나,
재잘거리는
금슬개천을 건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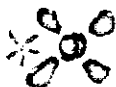
한 마을 모퉁이
정씨 아저씨 기와집 토담집을 돌아,



사립문 옆 우물 낀 마당을 밟고,
토방을 디디니,
소복입은 여인이
백발을 남자한채
서러운 가락으로,
다듬이질 한다.

오십여 년의 한 맺힌 외침으로,
어머니!!!
우리의 심장은
호한과 환한의
셋잇단 십육분음표로 마구 달린다.

이제는
이 눈여,
이 심장여,
한 핏줄의 애를
저 세상까지 이어 가리.



부으로의 항해

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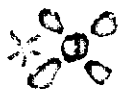
김제여고 3학년

우리는 지금 항해를 준비한다
 바로 달을 듯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곳의 밤을 항해

선장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굳은 신념과
 한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강한 마음만 있다면

항해를 하는 동안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지쳐 쓰러질 지라도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의 신념이 하나 되는 그 날에
그 곳의 봄으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

정 견디기 힘들 때에는
노래를 불러라
그 곳의 꽃 피는 봄으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모두의 염원이 담긴 노래를

거친 파도에
힘쓸것던 서글픈 마음
봄날 녹듯 사라지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봄의 기운 듬뿍 받고
모두의 가슴에
온기로 가득 찬다



나는 희망입니다

박희진

무주초 5학년

나는 희망입니다.
눈물 뚝뚝 흘러며
가족을 사랑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에 맺힌
가슴 시린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통일을 기원하며
산타할아버지께 소원 편지 띄우는
아이들의 손끝에 담긴
순수한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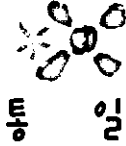
나는 희망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푸른 한반도기에 걸린
기운찬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북한의 사고 소식에
내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의 두 손에 모인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남북통일 확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담긴
행복한 희망입니다.

나는 믿음입니다.



통 일

김민지
산복중 3학년

유혈의 아픔은
피비린내 나는
산당성이에 잠들어 버렸다.

총성이 울리던 벌판에서
어미 잃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은
메아리쳐 사나져 버리고
지금 그 아이들은
곧 파인 주름 안고
숨죽여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보고싶은 어머니
기다려 주지 않는 세월



머물지 않는 시간
자유의 다리를 분계선으로
지척의 땅위에서
눈길만 오갈 뿐

뒤편진 휴전선은
언제쯤 풀리려나
새로이 이어진 철로
끝없이 달리려는 철마는
말없이 침묵만 지키고

가슴속에서 꿈꾼다
가슴속으로 외친다
오늘의 염원은
오늘의 통일은.



종이 비행기

김희선

전주출내고 1학년

어무이요, 잘 계시능교...
형님, 어디메쯤 계십니까...

윗집 꼬마가 종이 비행기 접어 날리면
꿈을 머금은 바람이
아래로 아래로 실어나른다.
해와 달이 손을 잡고 타고
하늘과 땅이 손을 잡고 타면
사랑이 핀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다가
철조망 앞에 멈춰버린다
종이 비행기 시들어 버린다
울상 짓는다

어무이요, 잘 계시능교...



이런저런 꼬마가 종이 비행기 접어 날리면
희망을 머금은 바람이
위로 위로 실어나른다.
빨강과 파랑이 손을 잡고 타고
기쁨과 슬픔이 손을 잡고 타면
행복이 된다.

위로 위로 날아가다가
담벼락 앞에 멈추어버린다
울상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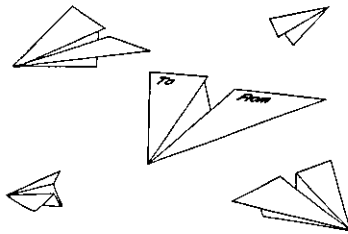
형님, 어디에쯤 계십니까...

꼬마야, 내일이면 네 비행기도
저기 저 새처럼
네가 사랑하는 꼬마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거야.



꼬마야, 내일이면 네 비행기도
저기 저 구름처럼
네가 사랑하는 꼬마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거야.

어무이요, 반드시 살아 계시쇼...
형님, 어디서든지 잘 계십시요...



전라남도



- 그 날이 오면
- 통일의 수평선
- 이름만 들어도 벅가 시린 그대여
-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 다시 서는 6월!
- 소망
- 룡천역의 이야기
- 통일의 그 날
- 초여름의 깊은 병





그 날이 오면

박주빈

순천대석초 5학년

가시돋힌 철책이
허리를 묶었어요.
부도 남도 모두 아파
고통에 힘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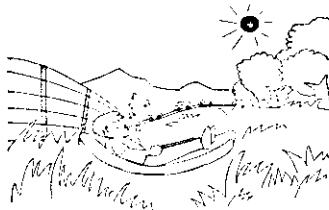
할아버지 이마에
깊게 패인 큰 시름과
할머니 눈가의
잔잔한 눈물
하마다 반복되는
슬픈 표정에
내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민족의 허리를
꼭꼭 동여맨 38선
이제는 돌돌 말아
걸어버리고
꽃밭을 만듭어요.



사랑이라는 꽃을 심어
한반도 전체를
은은한 꽃향기로
물들여요.

할아버지의 큰 시름과
할머니의 걱정
웃음으로 바꾸려요.





통일의 수평선

신 금 지
고금중 3학년

같은 하늘 아래 우린 참으로도
긴 고통을 삼키었습니다.
달을 쫓 하면서도 닿지 않은
긴 세월을 우리는 헛되이 보냈습니다.

강산은 변해도 벌써 몇 십번은 변했고
당신이 가꾸던 진달래도 몇 번이나 활짝이었다
시들곤 하였으며
당신과 나를 가로막던 그 무엇도 많이 낡았지만
내 기다림은 소철마냥 늘 녹음을 띄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락가와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그것이 애치로와 심장이 녹아듭니다.
그것이 답답하여 목이 메어옵니다.

언제쯤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저 수평선처럼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허리끈을 언제쯤이면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이 행여
나를 굽어보진 않을까 하여
당신께 드렸던 내 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이 행여
나의 뒷모습을 보진 않을까 하여
당신께 드렸던 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이라도 행여 볼 수 없을까
난 오늘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하면서도 닿지 않는
수평선이 한없이 미워 보일 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뼈가 시린 그대여

이 나 리

여수정보과학고 3학년

같은 하늘아래 같은 구름아래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누는 우리들
 어찌하여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살아야 하는가

철조망 하나 사이에 놓고
 가슴 한 구석 미어지는 소리가
 응어리로 자리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고 소식을
 TV로밖에 전해들을 수 없는
 손 한번 잡아줄 수 없는 이 마음

눈앞에서 검게 그을려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미친 듯이 떠오른다.



너무나 큰 고통
견딜 수 없는 암흑 속 끝부짓음...

높고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올라
보고픈 이 다 만나는 구름처럼
떠다닐 수 있다면
온 힘 다해 아파할 어린 아이들을
꼭 한번 안아보련만...

그래도 혹시나 들을까
무척껏 불러 보지만
무정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

하나이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위엄있던 호랑이 지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물의 땡땡어리가 된 한반도에
밀물 같은 그리움이 서린다.
이제 이름만 불러도 뼈가 시린



아아~ 그대여

상처 입은 몸과 마음 속 응어리들은
언젠가 하나가 되어 있으리라
그동안 못했던 가슴 속 말들을
참아왔던 설움 토해낼 그 때에
저 녹슨 철조망 무너뜨리고

서로 두 손 마주 잡고는
환희의 노래를 불러 보리라!
그리운 이름 끝없이 외쳐 보리라!

구름에 실어 온 북녘 소식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날에

한강에서 백두까지
자유와 평화 사랑이 넘치리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전 대 원

목포북교초 2학년

서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고개 돌리지 말아요.

세계 지도를 펼쳐 보면
그리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

휴전선 가로 놓여
마음대로 오갈 수 없어도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였어요.

파란 꿈 키우려는
뜨거운 가슴마다
살며시 떠오르는
간절한 소망은
눈감아도 잊을 수 없는
통일이에요.



남북이 하나 되어
환하게 웃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떨리는 손 마주 잡아
위로해 주면
내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웃음소리
가득 찰 거예요.

평화와 번영을
두 손에 나눠 들고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그동안 쌓인 아픔이
모두모두 사라지고
지금 보다 잘사는
통일 한국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서는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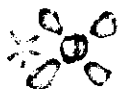
장은혜

순천송평중 2학년

푸르름이 온 누리 감싸던,
우리네 가슴에
고요만이 깃들던 그 날,
온 누리의 푸르름과
우리네 가슴에 고요를 깨던
포성 소리!

포성 소리,
민족의 뉘를 앓아가고,
포성 소리,
푸르른 산하 갈기갈기 찢어 놓고
포성 소리,
우리의 긴 이별을 불러 왔네

이별은 길고 길어...



점은 아낙
백발의 할머니되어
대문간에 기대서서,
그 옛날 점은 남편 기다리고
그 옛날 점은 남편
녹슬은 철모 옆에 두고
푸름 짙은 산천에 누워있네

그 때의 잔인했던 6월은,
월드컵의 함성으로
우리들 앞에 다시 서고,
그 때의 피 흘린 아픔은,
우리 국민 하나된
붉은 빛으로 다시 썼네.



소망

백인혜

백제고 3학년

그리움의 조각이여
 오늘도 내 심장에 박혀
 고통의 나라으로 떨어뜨린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차디찬 쇠붙이 몸에 박힌 지
 50년이 넘어가거늘
 배내어 버리지 못함에 눈물이 강을 이룬다.
 누가 우리 민족의 붉은 핏줄을 끊을 수 있으랴!
 삼천리 금수강산 높이 솟은 봉우리 같이
 우리 겨레 마음 또한 더 높이 솟으리요.
 푸른 한강을 지나
 님 있는 두만강까지야 하루 만나절
 굶이치는 물결 따라
 님 만나러 가면 종으려면만
 천 번의 해가 뜨고 달이 지면
 백 번의 무궁화 피고 지는데
 님에게로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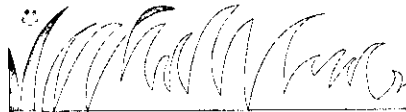


이 내 마음 하얀 비둘기에 담아 날리니
님 그리며 보고 싶소, 잘 지내오.
수 천 번 되뇌어 보아도
뻗속 깊이 파고 든 그리움
지을 길 없는데

늘어가는 이마의 주름만큼이나
입가의 미소는 보인지 오래지만
심장에 박힌 그리움의 조각과 함께
나의 바람, 우리 민족의 바람이
북녘 땅 깊은 곳으로 뭉결칠 때
보이지 않는 민족의 끈이여
꿈디 고운 한복차려 입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 아래
백두산 천지가 마를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소망하여 바란나니



한 서린 땡땡어리 한 줌 티끌 될 때까지
어제의 고통과 쓰라린 상처 어루만지며
나의 조그마한 바람에
부모 마음 담아 형제 마음 담아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소망하며 바라나니
보고픈 님이여, 그리운 민족이여
한반도 땡 땡어리 무궁화 만발하여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 다시 만나리라.
검은 피 튄글는 가슴을 부둥켜안으며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소망하며 바라리라.





공천역의 이야기

김 용 수

무문청초 1학년

오늘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북한 공천역 기차가 폭발해서
 어린이들이 눈, 귀, 얼굴을 다쳤대요.
 지붕은 어디로 사라지고
 벽들은 구멍이 뚫 뚫러
 이리 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한 어린이는 살아 있었는데
 그 어린이의 첫 이야기는
 "버버가 고평요," 였어요.
 나침 동안 흙더미 속에 갇혀 있다 구해졌다고 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가까운데 갈 수 없는 나라!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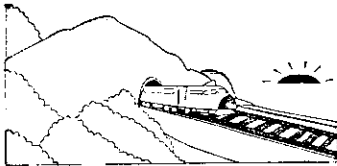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멀고 피 흘리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느님!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흐르는 피가 멈추게 해 주세요.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통일의 그 날

박지현

전남체육중 2학년

1950년대 김구 선생님이
북한 길에 오른 것은
통일을 위한 결단이었다는데...

6.15 남북 정상회담이
기쁘게 포옹하던 모습 보며
통일의 기적소리
울릴 것만 같았는데...

북으로 더욱 가까워진 금강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북으로 북으로
달려가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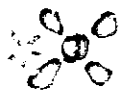
이거야 바로 이거야
좋아하며 박수칠 때
통일의 그 날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남북 이산가족이
북한에서 만나
혈육의 정 나누고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으로
온 국민 힘을 모아
구호물자 보낼 때
그야말로 이제는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해산하는 고통 이겨내며
기쁨으로 기다리듯

통일될 조국 생각하며
나의 주어진 직분
성실히 하다보면
기쁨의 그 날 맞이하리...



초여름의 깊은 병

조 하 나

조도고 3학년

밤새 얼로 몸을 두척이었다.
고질병이 된 분단의 몸살로
초여름이면 되바라지는 아픈 상처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만 키우면서
분단이란 고질병도 배부름에 마추도되어
깊어가는 고통을 시나브로 잊어간다.

그러다 보리밭 넘는 6월 바람에
되바라지는 상처가 드러나야만
일 년에 한 번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새
분단의 상처를 아문 상처로 당연하게 여기며
한 짝 동포를 겨울 속에 가두었다.



상처에 대한 빠른 치유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슬픔도 이유를 알면 씻을 수 있다.

바람 채우면서 분단을 잊는 우리의 상처
분단을 잊는 데 드는 투자를 아끼워하는 상처
우리는 이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분단은 억지고 통일은 원형이다.
분단이 길어지면 원형을 잊게 될 수 있다.
치유란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구심력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간절히 그리워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했다.
무숨 걸고 그리워하기로 하자 열이 내렸다.



그리움에 대한 투자를 하면
시간이 더디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상처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할 수 있다.



경상북도



• 벽

• 금강산의 비원(悲願)

• 하나됨을 위하여

• 가 보지 못한 초록빛 땅

• 따뜻한 두 손

• 안 개

• 통일 한마당

• 아버지의 편지

• 한 걸음





벽

박지연

금라초 6학년

저 부엌 우리의 땀엔
왜 너와 내가 살지 못하고
붉은 피멍으로 얼룩진 숲마다
검은 균화 자국만 무겁게 내리는가?
꽃잎 따라 가는 고운 길마다
지렁이가 입 벌리고 발길을 막는다.

어린 냇의 기억을 더듬으며
50여년의 세월
흐린 눈물처럼
그리운 마음처럼
높이 쌓인 마음의 벽
절망처럼 드러누운
철조망을 바라본다

갈대와 억새 자라는 속으로
녹슨 지렁이가 속병을 앓고



사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웃음이 없는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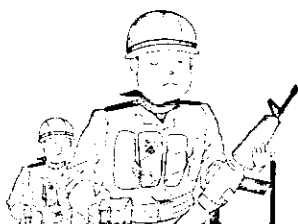
철책선 넘나드는 새들과 나비,
임진강을 흘러오는 잉어떼,
시간을 잊고 생각을 잊고 노는데-
북녘 바람이 내 더운 이마를 식혀 주듯
우리 그렇게 살수는 없을까?

새벽, 하늘을 나는 유월의 새벽
여기는 미움과 다툼만 있는 곳이 아니야
녹슬어 드러누운 철로 일으켜
다시 기적 울리며 달려가야지

우리의 진실 우리의 희망을
가슴과 가슴으로 밀친다면
아픔의 벽도 마침내 무너져서
막힌 가슴 스스로 열어



분단의 손들을 잡을 때
귀 찢는 총소리 대포소리 지우며
저 북녘에서도
평화의 노래가 들려 오겠지.





금강산의 비원(悲願)

남 이 슬
석포중 3학년

한반도 등줄기
내달리다가
맥동아치던 가쁜 숨
안으로 다스리고
문득 멈춰선 높은 음자리

하늘의 구름
자유로이 오가듯
바다의 고기들
맘대로 헤엄치듯
南과 北도 그리되게 해주소서
그리되게 해주소서
계곡처럼 깊게
물처럼 부드럽게
새들 노래하듯 대화하게 해주소서



동해 푸른 물에 머리를 감고
북서풍 하늬바람에 온몸을 씻어
짙레꽃 향기 은은히 피워놓고
두 손 모아 눈감고
사려 앓은 금강산





하나됨을 위하여

정은전

대바야고 2학년

해는 솟아 만물은 활짝 깨어났으나
어찌하여 휴전의 문 앞에 서서
한 몸이 두동강으로 나뉜 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문을 두드리 열지를 못하는가

씻을 수 없는 역사는 지금도 충분히
복숭아 속살같이 여린 우리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멍에를 남기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허황된 망언을 뱉으며
살을 찢어 피를 내는 고통의
가시밭길로 다시 되걸게 할 텐가

이 작은 붉은 가슴과 두발로
이질화된 문화를 밟고 일어서

산 허리가 두 손을 마주잡는 그 날 위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애처로운 영혼을
기리고 기리고 또 기릴 것이니
향기 없는 꽃잎처럼 가슴으로 떠안으며
세월의 굶은 비를 조용히 닦아내어

우리 민족 염원의 닦을
이슬이 채 마르기전 벌을 줍듯
우리의 눈물을 담아
국토가 하나되는 기쁨의 생수를 만들자.





가 보지 못한 초록빛 땅

천상희

형곡초 6학년

무엇인가 그림다는 것은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어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웃다가도 어느새
이슬처럼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리는
그리움의 알맹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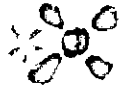
꿈 속에서 할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잘못도 없이 식구들과 헤어져야 했고
울어야 했고
끔찍한 광경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두르고 키 큰 나무들,
맑은 햇살 속에서 더 파아란 하늘
맑은 물 흐르는 작은 내,
촉촉한 흙 냄새가
풀내음 꽃내음과 어우러져
비림타고 사랑이든 그 곳.

할아버지의 초록빛 땅은
어느새
가 보지 못한 내게도
소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마다
유월이 되면
주름만큼 깊어진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구름타고 등실
초록빛 땅으로 흘러갑니다.



따뜻한 두 손

함연정
수비중 3학년

재작년

유난히도 춥던 겨울

우리들은

금강산을 밟았다

하이얀 이불을 뒤집어 쓴

일만 이천 산봉우리 금강산

일만 이천의 이불처럼

내 마음도 북한 추위에

이불을 끌어 당긴다

날씨가 하도 추워

두 손 싹싹 비비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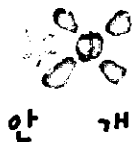


멀리서 다가 온 부한 언니 한 명
언니 손 안에 나의 손이 싹속
들어간다.

순간 매섭던 추위도
저 멀리 뒷걸음질하고
나의 몸을 감싸는
따뜻한 봄 햇살

관 설고, 낮 설었던
부한 사람들

그들도
따뜻한 두 손 가진
우리의 가족



안 개

권수정
안덕고 2학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희뿌연 안개 속에서
50여 년의 세월을 이리 저리
방황하였나 봅니다.

흐르는 강물 따라
거미줄 친 당신의 얼굴과
그리움은 넘쳐만 가고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과 서러움에
당신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걷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열어붙은 차디찬 심장을
다시 뜨게 할 수만 있다면



강물따라 흐른 가슴 아픈 기억들은
기억 저편 밀어버리고
환희에 찬 가장 아름다운 날빛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쳐 보냅니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와 가식적인 웃음은
강물 따라 흘러버리고
잊지 못해 담아놓은 이련한 기억의 상자를 열어
행복했던 한반도의 추억을 도찾아 보냅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은 쇠사슬을
저기 멀리 거두어 버리고
반으로 갈라져버린 심장이
그리움 없는 하나의 심장으로
자유로움을 도찾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통일 한마당

김도균
저동초 5학년

남과 북 어우러져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세
얼쑤

갱 갱 개갱 개갱
백두에서 울려오지는 소리

덩 덩 덩덕쿵 덩덕쿵
한강에서 들려오는 소리

쿵 쿵 구쿵 구쿵
서울에서 놀아보세

징 징 징 징
평양에서도 놀아보세



부산에서 청진까지
통일음악 올려보세

우리모두 손에 손잡고
어깨춤 추어보세





아버지의 편지

최유미

축산중 3학년

오늘도 아버지는 편지를 쓰신다
주인없는 편지를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라는
첫 글머리로 시작하여
한없이 이어지는 글자들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 속에
그리움이 묻어난다.

오늘도 아버지는 편지를 쓰신다
그리움의 편지를

초등학생이 쓴것같은
비뚤비뚤한 글씨들에
한획 한획 마다



자신의 그리움을 담아
꾸욱 꾸욱 눌러 쓰신다

오늘도 아버지는 편지를 쓰신다
눈물의 편지를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니 그리움이
아래로 떨어지면
편지속 글자들과 함께
번져나간다

그렇게 매일같은 아버지의
편지쓰기가 끝나면
편지는 조심스레 봉투 속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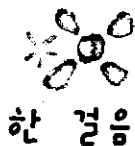


전해치지도 못한 많은 편지들과
길고 긴 잠을 잔다.
언제쯤 이 편지들이 전해질는지
언제쯤이면 눈물이 마르실는지

통일이 되면 전해질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눈물이 마를까...

오늘도 아버지는 편지를 쓰신다
주인없는 편지를
다시만날 그날을 위해
통일이 올 그날을 위해 아버지는
오늘도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 두신다

50여년 간을 한결같이 써온
그 편지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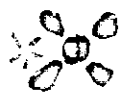
한 걸음

김 새 롬
호령고 1학년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선이 있더냐
푸른 들 위로
선이 있더냐
그저 아름답기만 한
한반도에
너와 내 이름 속에
선 아닌 선이 그어져 있구나

미워서도 아니요
싫어해서도 아니한테
반세기가 그리 길었더냐
서먹해져 버린 너와 내가
얼굴 마주하지 못하는구나

남일려도 남일 수 없는
우리 형제...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뀐다하여
저절로 없던 일이 되겠는가
서로의 맘은 같은 곳을 향하는데
몸은 아니로구나

어색해도 속스러워도
마주보며 웃어보자!
안녕을 주고 받자!

한 걸음씩
너와 내가 나란히 웃으며
하트를 올려다보는
그 날까지 걸어가자

경상남도



- 할아버지 무궁화
 - 가치가 올면
 - 꿈
- 통일꽃 무궁화
 - 가차이야, 가차이야
-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 무궁화
 - 가차이
 - 꿈





할아버지 무궁화

고 지 현
대방초 4학년

산에도 들에도
옆집 앞집에도
무궁화가 활짝활짝

내가보면 정말정말
이쁘기만 한데
옆집 할아버지가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옆집 할아버지
그래서 이상하게

알고보니 말이야
지금부터 54년전에
형이 특하고 깎어 준
무궁화 때문이라



형은 돌아온단다
꼭 돌아온다며
손에 쥐어 주고 가버린
무궁화 때문이라

어느새 어느새
나도 내마음에
더물이 큰샘큰샘

할아버지 때문에
통일이 간절해진
내마음





가치가 울면

김 영

대방중 3학년

아름드리 감나무 가지에 앉은 가치가 울면
 마당에서 나를 반기시던 할아버지
 당신 나신 그 곳에 지금은 나, 갈 수 없어요.

이따금 피우시던 담배 한 개피
 그건 당신 기억 속에서 사위어가는
 어머니의 조근조근한 대답소리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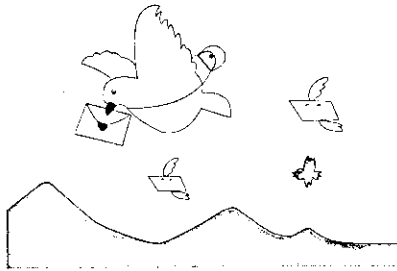
내 손에 주어 주시던 주전부리들
 그건 당신께서 그리롭게 소원하시던
 만남의 그 날을 위해 모으신 것이겠죠

할아버지, 돌아가실 적 흘리신 눈물
 그건 오래 전 이국 것이 되어 버린
 나고 자란 동네의 후미진 골목이고
 새하얗게 흐드러진 옛 사랑의 얼굴인가요?



지금 당신 계신 마당에 까치가 울면
앓던 누이가 치마를 펼럭이며 안길 것이니
그곳에는 절절한 망향의 눈물도 없으시겠죠?

할아버지, 오늘 제가 담아오른 마음으로 투한 편물이
자꾸 북북으로 흐르네요.
땀줄을 찾아, 뿌리를 찾아 흐르네요.





꿈

김 세 련

진주강서여고 2학년

호합이다 평화다.

민족적 역량의 재해다, 하는 말 뒤로

바쁘게 핵무기를 재점검하며

꿈을 영원히 꿈으로만 두려하는

위대한 민족정신에

TV도 현기증이 나는 지리한 오후

모의고사가 끝난 학교길, 늙은 담벽 아래로

이름도 속성도,

혹은 살아있는 당위성조차도 모르는 듯한

어린 들꽃을 만났다.

그의 입사귀는 담벽 너머

떨레꽃 버러지를 만나는 것이 꿈이라며

여린 푸르름으로

담벽을 두드리는 듯 하기에



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에게 귀뜸을 해주었더니
그의 말이,
앞사귀로 담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자라서, 그의 뿌리를
땅 속 깊이 박아 담 너머로 갈 것이라 하더라.

작열하던 태양이 노을을 토하며
산등성이에 이지러지는 오후,
꿈을 꿈으로만 두려는
지극히 위대한 어느 정치인의 통일 연설 뒤로
살아있는 당위성조차도 모르는 듯한
어린 들꽃의
미천한 꿈을 향한 질주를
나는 보았다.



통일의 꽃 무궁화

오혜진
칠원초 6학년

너무 세련되지 않고
너무 우아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혼을
고스란히 담은 듯한 무궁화

우리 교실 앞
조그마한 정원에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무궁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 역사와 함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그 긴시간을
학교와 함께 보낸 무궁화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우리들을 위해
더 아름답게 더 활짝 피며
살랑살랑 몸 흔들어 주는 무궁화



여러 힘든 전투 끝에,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너무 튀지 않는 고운 꽃
무궁화로 환생하신 것 같습니다.

21세기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우리들을 만나려고

힘들게 도착은 우리나라
휴전선 넘어
저쪽 끝 북한에 가지
통일의 꽃 무궁화를 피우셨습니다.



가치야, 가치야

정수진
김해장유중 1학년

가치야 가치야

먼 이북 땅에 홀로 계실
우리 할머니께 전해주겠니?

할아버지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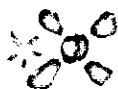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자던,
한오백년 살다 가자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하시더라
그리 전해 주겠니?

재롱둥이 어린 사남매가

씩씩하게 잘 자라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그리 전해 주겠니?

할머니 손자 보시게

통일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라
그리 전해 주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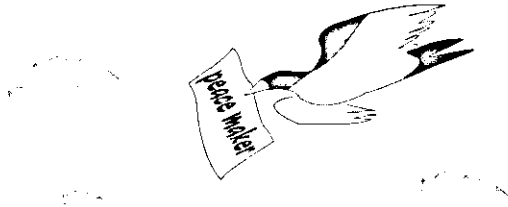
통일은 꿈이 아니라고
반드시 이루어 질 거라고
한 맺힌 이산가족의 힘으로
온 국민의 땀 흘리는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
그리 전해 주겠니?

한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볼 수 없이 한 없이 안락하워도
이렇게나마 달려어 보시라
그리 전해 주겠니?

가치야 가치야
백두산 천지까지라도 가서
내 말을 전해 주겠니?



하루 빨리 통일되어
할머니를 뵙고 싶은 내 마음까지도
전해 주겠니?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이정훈
합포고 3학년

포성이 울리기 전
철없는 아이의 울음이
침묵으로 변했을 때,
그 때부터 우리는 만나야 했었다.

눈물이 이룬 강이
총검을 녹일게 하고
떠난 전차는 돌아오지 않는데
그리운 이의 사진, 얼룩진 웃음
서러운 50년의 눈물의 강을 건너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감자가 먼저 가 뿌리 내리고
소가 먼저 가 울었던
선 너머의 땅을



'너'가 아닌 '우리'라 부르기 위해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철조망 앞에 서로를 원숭이로 만들며
손가락질에 비뻤던 '너'와 '나'
이제는 우리가 되려
마주 안아야 한다.

조각조각 찢어져
완성되지 못한 퍼즐같은
우리의 염원
철조망 부여잡은 뜨거운 가슴으로
철조망 피맺힌 각을 녹이며,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



무궁화

이 태 관
계몽초 6학년

무궁화는 북한도
갈 수 있지요
비록 우리는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꽃은
북한도 갈 수 있어요.

바람이 바람이 무궁화를
도와 준대요.
무궁화는 통일에 대해
모든걸 다 아는 우리의
수호천사 선생님 이에요.

무궁화는 무궁화는
나에게 가장 큰 존재가
될 스승님 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할 큰
꽃은
바로 무궁화 이예요.

무궁화는 곧 북한에
대한 것도 바로 알거예요.
또 통일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도 알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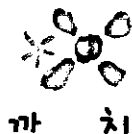
저는 이제부터 통일에
대한 모르는 것을 무궁화
선생님께 물어 볼거예요.

저는 이 많은 통일에
대한 것을 다 배워
장차 큰 길을 걸어 갈 거예요.



오만하면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큰 길을 걷기 위해서요.





가 치

조 설 미
동진중 3학년

"각각각각 각각각"

문득

찬 아침공기
맑게 울리던
가치 울음소리

난 아득한 기억 속에서
어느새 가치울던
내 고향 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온 동네로 흩어지던
가치 울음소리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깜마른 덩벙머리 아이들의
빛나던 눈동자

갈래야 갈 수 없는
고향의 까치 울음소리
다시 들을
그 날이 오면

"오머니, 아버지!"하고
불러 볼텐데
어린 적 기억 속에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
단박에 달려올 듯한데

아아,
다시금 들려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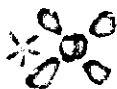


저 까치소리가
고향의 것이라면

발돋움하여도
보이지 않음을
고향의 것이라면

한 밤에도 이랑곳 없이
기쁘게 달려 올
귀한 손님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문 밖에 등불을
밝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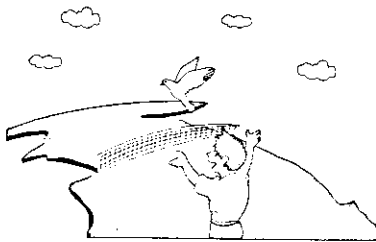
꿈

박 초 룡
진주여고 2학년

이 아이,
 비닐 봉지로 싼 돈을 삼키고
 울리는 총성을 뒤로 한 채 강을 건너
 중국 땅, 나는 밤 8시 이 아이를 만났다.
 열 여덟 히고 찬 얼굴에 멍멍한 눈,
 동생의 약감도 한 가족 식량도 이 어깨에
 짊어졌다.
 열 여덟 나, 얇은 시집 한 권 꺾어
 시 나부랭이를 읽으며
 떨어지는 장미 꽃잎에, 멀어져 가는 내 이상에 눈물
 떨어졌다.
 떨어져 내리는 저들을 모른채.
 아이의 울음 소리는 낮은 선풍기 소리와 섞이고
 심장을 찌르고 눈을 찌르고
 땀방울이 맺히고 눈물이 흐른다.
 TV 속 다큐멘터리는 끝나가고



따스한 목소리의 나레이터는 도움의 손길을 비란는데
눈 앞에 어른거린 것을 그 멍멍한 눈동자
6월 13일 저녁 9시
이 모든 것이 하룻밤 꿈이라면



제주도



- 활짝 웃는 한반도
- 별이 되고 싶으신 우리 할머니
 - 연(鰲)
 - 종이처럼
- 꿈은 이루어진다던데
 - 수평선
 - 룡천 아이들
- 북에서 온 특별한 선물
 - 6월의 꽃





활짝 웃는 한반도

이 예 린
대정초 5학년

내 동생 효린이는
네 살배기입니다.

효린이는 아침마다
TV광고에 나오는 지도를 보며

“우리나라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

제주도,
14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노래합니다.

내 동생 예세는
38선이 없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한반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산가족 남북상봉
공천역 폭발사고

기쁜 일 슬픈 일
우리 모두 함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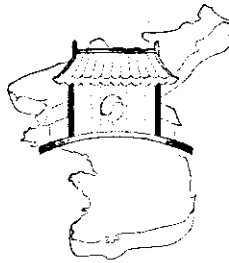
평화로 하나 되는
금수강산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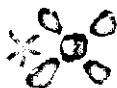
우리민족 모두
네 살배기 내 동생처럼

마음 속에
38선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내 동생의 노래 소리가
가득 울리면
좋겠습니다.





별이 되고 싶으신 우리 할머니

박지혜

리얼중 1학년

피난 올 때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
평생 한이 되신 우리 할머니

생사도 모르는 아들생각에
주름진 눈가에
매일 눈물이 고여 있던 할머니

그런 우리 할머니
한 말씀 삼삼 접으시던 날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난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되고 싶단다.
별이 되서



나 같은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도
환히 비쳐주고
내 아들도 찾을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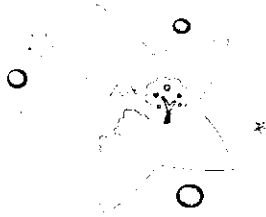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깃가에 울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산가족의
현실을
아프게 한다.

나는 희망한다.
별이 되고 싶다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갈망한다.
할머니 같은 이산가족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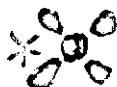


연(鵞)

한 아 름
제주여고 3학년

매일 아침,
북녘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는 구름을 날린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리움을 실어 아픔을 실어
너무 무거운
연줄이 끊어질라 조심스레
할아버지는 구름을 날린다.

할아버지의 하얀 연은
남으로 남으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몸부림에 석이어
눈은 어머니만 두고 떠난
죄스러운 자식의 한이었다.
가슴 속 깊이 응어리진
울분을 토해낼 수 없던
핏덩이같은 세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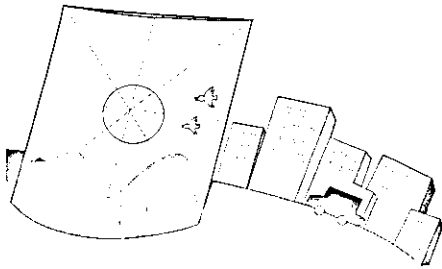


새하얀 종이 위
비뿔비뿔 어미 이름 석 자.
할아버지의 연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았다.
저 너머로 가지 못하고
힘없이 투-떨어질 때
할아버지의 마음도
한없이 곤두박질쳤다
비뿔비뿔 어미 이름 석 자는
하얀 연을 검게 적시었다.

누군가는 보아주리라-
힘없이 하얀 연이
흙구덩이 속에 나뒹굴어도
가슴 속에 사무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애



그리움을 한 움큼 더 얹고
할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얀 구름을 날린다.





강민주

수산초 6학년

종이를 접다가 종이가 찢어졌어요.
 마치 우리 남북도 찢어진 종이 같아요.

찢어진 종이는 딱풀로 붙이고
 전쟁으로 찢긴 남과 북은
 통일이라는 꿈로
 깨끗하고 반듯하게 붙어요.

붙인 것도 모자르다면
 꿈로 붙인 경계선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사랑이라는 마음의 꿈로 호호 붙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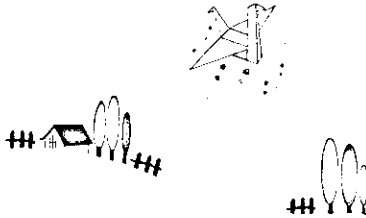
그러면 남북은 처음의 새하얀 백지 한 장처럼
 아무런 자국이 없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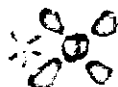
내몸에 자국이 생기면 가족이 아파하고,
 남북이 자국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잖아요.
우리 아파하지 말아요.

가족처럼 우리 하나라는 이름으로 화목하게
살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던데

양혜진

서리중앙여중 3학년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리라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꿈 되시든
 심훈 시인님은
 조국의 광복을 그리렇게 그리렇게
 갈망하셨는지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더니
 유관순언니가 꿈을 꾸고
 안중근의사가 꿈을 꾸고
 이름없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리렇게 서른 여섯해만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는지요

좋은 일에는 마가 깐다더니
 신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잘난 민족이어서



조금 천천히 가라고
몸을 반으로 분질러 놓았나봐요

우리 아버지적에는
어쩌다가 외국에서 운동경기 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면 절대로 안되는 거라고
운동장의 싸움도 전쟁같았대지요

꿈은 이루어진다더니
지금만큼이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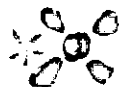
유관순언니가
안중근의사가
조국광복을 꿈꾸면서
기꺼이 몸을 내던진 것처럼



그렇게 장한 일은 못하겠지만

우리도 한 번 꿈을 가져보죠 뭐.
작은 일이라도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십시일반 힘을 모아보죠 뭐.





수평선

김미양

제주관광산업고 3학년

표실표실한 귀를 안고 사탄
바다가 있다.

찰랑찰랑한 물결에 빠져드는
하늘이 있다.

하늘이 행복에 웃음 짓는 날
바다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바다가 슬픔에 절규하는 날
하늘도 서럽게 통곡을 한다.

하늘이
붉은 분노를 쏟아 낼 때면
바다는 하늘을 달래이며
그 뜨거운 분노를 전부 받아 내고



바다가

어둔 시간에 우울할 때면
하늘은 바다를 어루만지며
바다의 물결 위에 반짝거림을 심어 준다.

꼭 하늘 만큼만
행복해지려는 바다와
꼭 바다 만큼만
슬퍼지려는 하늘이

나에게 어른어른
파아란 손짓을 하면

내 눈은 바다가 들어 찬 듯
서러워지고
내 가슴은 하늘이 들어 온 듯
서늘해진다.



내가 정말
저 냇물을 담을 수 있다면
나날 이 모래 만큼도
슬프지 않을 것을.

저 위 파란 하늘에
바다가 있고
저 아래 파란 바다가
하늘이 있다.

포설포설한 구름을 안고 사는
바다와
찰랑찰랑한 물결에 빠져드는
하늘이

부끄러운 나에게
어른어른
파아란 손짓을 한다.



룡천 아이들

허 남
삼양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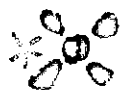
2004년 4월 22일 오후 2시 20분
광! 폭음과 함께 들려온
사람들의 비명소리

불길이 지나간 곳곳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잔해들

무너진 룡천소학교
그 안에 룡천 아이들의 비명소리

이곳저곳 흩어진 병원
그 안에 룡천 아이들의 울음소리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와 아픔
함께 나누고 싶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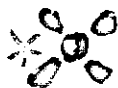
38선 이라는 아주 큰 벽
막고 있으니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이제 통일의 씨를 뿌려
내가 있는 제주도와 룡천에
아름다운 통일의 꽃이 피어나게 하고

나는 나비가 되고, 새가 되어
38선의 하늘을 훨훨 날아
 룡천 아이들의 아픔과 함께 하리.

내 마음은 이미
 룡천에 가 있구나.



북에서 온 특별한 선물

오 가 인

한림여중 3학년

고향땅 밟기를 원하는 당신의 그리움을,
통일이 되기를 염원하는 당신의 간절함을,
푸른 금강에 전하고자
오늘도 나는 하얀 우체통 앞을 서성인다.

그래도

고향이 있어 형제가 있어 동무가 있어
가끔은 눈물을 거둘 수 있었다는 당신의 말을,
지친 몸은
이미 고향을 떠났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영원히 둘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파란 백두에 전하고자
오늘도 나는 하얀 우체통 앞을 서성인다.

어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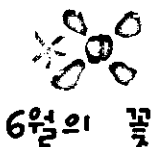
굳게 닫혔던 저 문이 열리고



우체부 콧에 안긴 따스한 답장이
통일호 타고 올 거라는 믿음으로
나중에 들려질 당신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생각하며
나의 얼굴에도 한가득 행복한 웃음소리가 묻어난다.

예전에 아픈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슬픈 한숨 쉬고 있지만
훗날 지어질 당신의 행복한 미소는
우리에게 주어질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 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하얀 우체통 앞을 서성인다.



김민지
삼성여고 1학년

세상의 많은 꽃들은 화려함 속에
무언의 슬픔을 담고 있다.

아이야,
이 서늘한 바람은
이 땅에 묻혀버린
우리네 영혼의 한 멋진 분노가
부르짖는 애달픈 함성이라는 것을
느끼니?

이 뜨거운 빗물은
철조망 사이로 서린
우리네 영혼들이
서러워서 마디마디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느끼니?



아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지만
아직 우리에게 찬란한
아침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하나 될 때
저 동구 밖에서 걸어들어 오는 이가
내가 그리워하는 이일 때
비로소 어둠이 걷힌다는 것을
아니?

오늘도 붉은 잎은 떨어진다.
그 깊은 향기 속에 애달픈 영혼이
하늘거린다.



제9회 학생통일꿈짓기대회 입선작 운문집

반쪽이의 꿈

- 운문집 -

초판인쇄일 2004년 12월

초판발행일 2004년 12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22

홈페이지 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B&S.ad

